

# 제8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건강한 교회 세우기 - 분과별 사례 교회와 신학적 분석  
일시: 2023년 9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장소: 분당 한신교회(윤교회 담임목사)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 목 차

제8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세부 일정/ 5

개회예배/ 6

알리는 말씀/ 9

제1발표 구본경/ 11                      최종일/ 27                      윤석주/ 31

제2발표 문진형/ 35                      오경환/ 53                      김정희/ 57

제3발표 채정명/ 63                      김병석/ 87                      김용성/ 91

제4발표 이영미/ 93                      조성호/ 115                      이강학/ 119

연구윤리 관련 규정/ 123

한국실천신학회 제28대 조직표/ 126

학회로고의 의미/ 129

발행색인/ 130



## 제8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세부 일정

일정	발표 및 내용
10:00~ 10:30	개회예배
오전 발표 10:30 ~ 12:30	<p>〈주제 강연 1〉                      발표: 구본경(이화여대) “공공성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 상담센터                      를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웨신대) / 논찬: 최종일(신라대), 윤석주(한국열린사이버대)</p> <p>〈주제 강연 2〉                      발표: 문진형(개신대)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성경적 역할:                      출애굽기 12-13장 연구와 Grace Family Baptist Church 사례분석”                      좌장: 김상백(순복음대) / 논찬: 오경환(총신대), 김정희(한일장신대)</p>
12:30~ 13:20	점심식사
13:20~ 13:30	연구윤리교육
오후 발표 13:30 ~ 15:30	<p>〈주제 강연 3〉                      발표: 채정명(웨신대)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복음적 프락                      시스의 설교: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으로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장: 최진봉(장로회신대) / 논찬: 김병석(호서대), 김용성(한신대)</p> <p>〈주제 강연 4〉                      발표: 이영미(웨신대) “목민심서에 나타난 건강한교회를 위한 리더십 고찰”                      좌장: 황병준(호서대) / 논찬: 조성호(서울신대), 이강학(횃불트리니티대)</p>
15:30	폐회

# 개회예배

인도: 서승룡 목사

목 도 ----- 다같이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송 -----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 다같이

대표기도 ----- 구병옥 목사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2장 1-7절 ----- 박은정 박사

설 교 ----- 이제는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윤교회 목사(한신교회)

찬 송 -----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다같이

축 도 ----- 윤교회 목사(한신교회)

광 고 ----- 박진경 부총무

[디모데후서 2: 1-7]

- 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 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 5 경기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통일 34)

# 전능왕 오셔서

10

경배

Come, Thou Almighty King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제 4:8)

ITALIAN HYMN: 6.6.4.6.6.6.4.

F. de Giardini, 1769

Collection of Hymns for Social Worship, 1757, alt.

보통으로

1. 전 능 왕 오 셔 셔 주 이 름 찬 송 케  
 2. 강 생 한 성 자 여 오 셔 셔 찬 기 송 도 를  
 3. 위 로 의 주 자 성 령 오 셔 셔 큰 증 거  
 4. 성 삼 위 일 체 께 한 없 는 찬 송 을

하 읊 소 서 영 광 과 권 능 의 성 부 여 오 셔 셔  
 들 으 소 서 택 하 신 백 능 성 들 복 내 려 주 시 고  
 주 읊 소 서 전 능 한 주 시 여 각 사 람 맘 에 서  
 드 립 니 다 존 귀 한 주 님 을 영 광 중 뵈 읊 고

우 리 를 다 스 려 주 읊 소 서  
 거 록 한 마 스 음 을 주 주 읊 소 서  
 떠 나 지 마 시 고 계 하 읊 소 서  
 영 원 히 모 시 게 하 읊 소 서 아 멘

# 210

# 시온성과 같은 교회

(통 245)

J. Newton, 1779

하나님의 성이여 나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소서  
(시 87:3)

AUSTRIAN HYMN: 8.7.8.7.D.  
F. J. Haydn, 1797

모퉁으로

1.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영광 한 없 다  
2. 생명이 솟아 나와 그 모든 성도 마 시 니  
3.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 는 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 다  
언제든 사람 비방해 도 주 족함 송 하 리 라  
세상 헛된 교회가 혼들 자 가 누 구 라  
이런 위물 에 세운 교 회 니 목 마 침 안 개 같 으 나

모든 원수에 위싸 도 아무 근심 없 도 다  
주의 은혜 풍족하 여 넘치 고 도 넘 친 다 아 멘  
주의 자 녀 받 을 복 은 영 원 무 궁 하 도 다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Eb → D Bb → A Ab → G Gm → F#m Cm → Bm F7 → E7 Fm → Em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하나님 나라



## ■ 알리는 말씀 ■

1. 제89회 정기학술대회에 오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개회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 진행을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당한신교회 윤교회목사님과 당회원, 기술지원으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제89회 정기학술대회 주제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 - 분과별 사례 교회와 신학적 분석”으로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본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발표자, 논찬자, 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신진학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학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 학회는 총 8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부총무에게 연락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4. 각 세션은 총 60분으로 발표 30분, 논찬 및 답변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다음 발표가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료집 PDF파일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처에 마련되어 있는 서기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는 개별적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점심식사 후 13:20부터 13:30에 연구윤리교육이 있으니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한국기독교학회와 제90회 한국실천신학회 공동학술대회가 11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 1 발표

### 공공성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구 본 경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신림동에서 발생한 범죄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으며, 8월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피의자가 흥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로 ‘묻지마’ 범죄 예고가 SNS 및 온라인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면서 원한을 가진 대상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다. 개인의 취약한 정신 건강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횡수와 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붓물 터지듯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의 원인으로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소외 가운데 있던 이들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사회에 대한,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를 ‘묻지마’ 범죄의 형태로 표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림동 범죄’의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힘들어서 그랬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모든 게 예전

부터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답하여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회의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한 교육이나 취업 등의 기회의 분배 역시 불평등하게 되어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나타나고, 사회의 분열을 야기하여 통합을 저해한다. 이로 인해 구성원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범죄 발생률 또한 상승하여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양극화 현상에 대해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과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나 사회 전반에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신학적 관심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 부의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무한 경쟁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와 현재 삶은 개인의 능력의 결과라는 능력주의를 전제하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와 신학의 개입, 공공성의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신학 분야의 연구와 관심이 있어왔으나 이의 극복을 위해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의 제시는 제한적이었다. 본 발표는 양극화가 심화된 코로나 이후 현대 사회에서 소외 계층의 회복을 위해 지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회 상담센터를 통한 소외 계층의 목회적 돌봄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지역 교회의 공공성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 II. 양극화 시대, 그리고 교회의 역할

양극화 현상이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극화란 자원의 분포가 최상층과 최하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상층과 하층에 인구가 집약되면서 중간층이 사라진 형태이다.<sup>1)</sup>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 소득자가 부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의 인구가 전 세계 부의 2%를 소유하고 있다.<sup>2)</sup>

경제적 양극화는 불평등을 낳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사회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

1) 신동균, 전병유,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1997-2003,” 『노동경제논집』 28(2005), 77-109.

2) World Inequality Lab, “Wealth inequalities within countries shrank for most of the 20<sup>th</sup> century but the bottom 50% share has always been very low”,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accessed August 19, 2023, <https://wir2022.wid.world/executive-summary/>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불평등은 절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 발생과 연관이 있고 자살률, 마약 및 약물 사용, 알콜 남용, 폭력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있다. 또한 학업 성취 저하 및 학업중단율과 조현병 발병률 및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사회적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sup>3)</sup> 경제적 불평등 사회에서는 경제적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모두 친사회적 행동은 감소하게 되고, 하위 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은 증가하게 된다.<sup>4)</sup>

경제적,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적 관점의 대립, 상대적 박탈감, 생활양식의 이분화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된다.<sup>5)</sup> 경제적 차이가 사회의 분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의 수준을 반영한다. 즉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집단 간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고 반란이나 폭동, 그리고 사회 불안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본다. 양극화는 결국 사회를 더 분절화시키고 본질적으로 덜 선한 사회로 만들 수 있다.<sup>6)</sup> 이는 양극화로 인한 내재적 갈등이 공동체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는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불릴 만큼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sup>7)</sup> 우선 디지털 기술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접촉을 금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활용이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이와 같은 변화는 디지털 패러다임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 계층과 기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하위 계층의 소외를 가져왔다. 또한 취업, 교육, 문화 등의 분야가 수도권에만 집중 되어 있어 그 외 지방 도시와의 차이가 심화되어 지역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 분야 역시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바이오, IT, 유통 등의 분야는 성장하였지만 전통 제조업이나 대면활동이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 소매업 등은 위기에 봉착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극화를 반영하듯 2022년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1배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난 ‘뉴노멀 시대’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19 이후 불평등을 심화시켜 여러 영역에 장기적 손상을 입혀 사회의 대분열이 올 수 있다고 말한다.<sup>8)</sup>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다른 계층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아 회복 불가능한 수준

---

3) 김영주, 나진경,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2018), 314.

4) 김태완 외,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51-52.

5) *Ibid.* 33.

6) *Ibid.* 34.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양극화 전망,” 『Future Horizon』 50(2021), 3.

8) *Ibid.* 4.

까지 이를 수 있다. 빈곤 계층의 위기는 사회적 분열로 이어진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 분열과 통합에 대한 국민감정 조사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61%의 수치로 팬데믹 이전보다 이후에 분열 감정이 증가하여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불평등의 심화와 사회 분열이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경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양극화 현상의 심각성은 부정적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것과 더불어 세대를 이어 전해지게 된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부의 대물림이 나타나 경제적 차별이 구조화 된다. 이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부의 세습이 나타나 사회 부정의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분노와 박탈감을 갖게 하여 사회 안정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경제적 양극화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배제에 있다.<sup>10)</sup> 소득 분포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분배에 있어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계층의 구조적 소외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는 곧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진다. 경제적 하위층 가정에서 부모의 부재 가운데 성장한 아동들은 애착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업에 있어서도 뒤떨어지기 쉽다. 사회 소외 계층의 자녀들은 학습 부진과 학교 부적응 문제 등을 호소하면서 또 다시 취약계층으로 살게 되는 현상이 대물림 되는 것이다.<sup>11)</sup> 가정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서 학대와 폭력 등 정신적 외상으로 남을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들을 향해 다양한 형태로 돌보고자 하지만 지역 사회의 세밀한 영역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스 쿡(Hans Küng)은 교회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중요한 “본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본질”을 발견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고 말한다. 교회는 고정된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닌 변화하는 “형태”라는 것이다.<sup>12)</sup>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회 계층에 대한 돌봄,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돌봄의 방식, 그리고 용이한 접근 방안에 대한 모색은 현대 교회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

9) *Ibid.* 5.

10) 김홍중 외,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3.

11) 존 알렌/ 권경혜 옮김, 『트라우마의 치유』 (서울: 학지사, 2010), 60-63.

12) 한스 쿡/ 이홍근 옮김, 『교회란 무엇인가』 (칠곡군: 분도출판사, 1994), 16-17.

회는 지역 사회 안에 그물망처럼 뻗어 있어 가까이 있는 취약 계층과 만나기 쉬운 물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교회로 내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교회 역시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로 인해 쉽게 소외 가운데 고통 받는 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학, 교회의 역할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가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이는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확립해야 할 공공성 실천과 맞닿아 있다.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들, 배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양극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공공성 실천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오랜 역사 가운데 사회 정의 회복에 기여해왔다. 교회가 개인의 사적인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해 온 것이다.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성서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신학적 근거를 탐색하고자 한다.

#### 1. 교회의 공공성 추구 근거

교회의 사회 참여를 논할 때, 케네스 리치(Kenneth Leech)는 하나님의 본질과 계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사회적 본질을 잘 나타낸다. 삼위일체인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분리나 차별, 불평등이 없다. 인간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세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표출하려는 뜻을 갖는다.<sup>13)</sup> 또한 삼위일체는 다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본질적인 평등을 만들어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독교적 사회참여, 공공성의 실천은 하나님에 관한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관계의 동등성이 있고, 사회가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신적인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회적인 하나님이다.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으로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거하는 분이다.

13) 케네스 리치/ 신현기 옮김, 『사회적 하나님: 교회는 왜 사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가?』 (서울: 청림출판사, 2009), 26-27.

바울의 말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는 유기체이다. 하나님이 참여적이고 사회적이기에 교회 또한 참여적이고 사회적이다.<sup>14)</sup>

성서 역시 교회의 공공성 실천과 관련하여 여러 단서들을 말하고 있다. 구약은 고아, 나그네,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에 관해 언급한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9:9-10) 레위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은 현대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구약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15:11) 이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가난한 자가 땅으로부터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가난한 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질 것을 의미하고 있다.<sup>15)</sup>

구약의 예언서 또한 성서의 공공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은 당시 지배계층의 부정과 탐욕에 대항하여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그들은 부정하게 사치를 누리는 지배 계층, 이들과 손잡은 종교지도자들, 농민을 보호하기보다 착취하는 지도층의 부정을 고발함으로 예언자들의 공공성을 드러내었다.<sup>16)</sup>

신약의 예수 역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활동을 활발히 했음을 알 수 있다. 복음서의 예수는 ‘홀로’ 등장하지 않고 언제나 ‘더불어’ 활동했다. 예수와 ‘더불어’ 있던 이들이 ‘무리’, 즉 ‘오클로스’다. 그리스어의 대중을 가리키는 단어로 ‘라오스’와 ‘오클로스’가 있는데 ‘오클로스’는 노예들이나 강제 징용자들, 고용된 사병을 부르는 말로 오합지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가는 곳이면 함께했던 ‘오클로스’는 세리들과 죄인들이었고, 당시 사적 재산의 일부로 간주하던 여성들이었으며, 몸과 정신이 아픈 병자들이었다. 이들의 공통점을 들자면 ‘가난한 사람들’이다.<sup>17)</sup> 예수는 이들을 교육하고 계몽해야 할 설교의 대상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의 삶을 살아냄으로 당시 사회의 차별적인 이데올로기와 고정화된 구조에 균열을 가하였다.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양극화로 운신의 폭이 없는 소외 계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구제를 넘어, 그들을 차별과 박탈이 없는

---

14) *Ibid.*, 25.

15) 한규승, 『구약 예언서의 공공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24-25.

16) *Ibid.*, 284.

17)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20), 155-164.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회가 이룬 지은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씌워진 틀을 벗을 수 있는 자유를 알게 하는 것이다.

## 2. 교회의 공공성 실천의 역사

교회는 역사 속에서 공공성을 주장하고 실천해왔다. 현대 사회에 있어 이러한 관점은 ‘공공신학’의 등장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는 마틴 마티(Martin Marty)가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의 시민종교라는 개념에 대비하여 처음 제시했다.<sup>18)</sup> 벨라의 시민 종교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관계 안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마티의 공공신학은 교회의 관점에서 사회적 참여와 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교회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신학이 필요한데 이는 신앙으로 개인 및 사회의 공적 생활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sup>19)</sup> 마티는 교회가 신앙적 통찰을 지니고 정의롭고 더 나은 세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주장하였다.

마티가 공공신학, 혹은 공적 교회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지만 신학과 교계에서는 공적 영역에서의 신학과 실천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sup>20)</sup> 교회의 공적 역할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신국론』에서 설명하였다. 그는 국가와 사회에 있어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정치권력은 죄성이 있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질서 확보를 강조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과 인간이 구성한 사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치가 사회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공적 참여가 교회의 책임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sup>21)</sup>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중세 유럽에서는 교회가 정치,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중세 교회의 타락과 부정으로 16세기 발생한 종교개혁은 세속 사회 및 정치에 막대한 영향

---

18) Martin Marty,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1974); Robert Bellah “Public philosophy and Public Theology,” in Leroy Rouner(ed), *Civil Religion and Political Theology* (Notre Dame, IN: Notre Dame Up, 1986), 79-97.

19)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21.

20) *Ibid.*, 59.

21) *Ibid.*, 63-64; 이형기,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34.

을 미쳤다. 아우구스티누스회 수사이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세속 정치권력은 그 권력의 선악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중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속적 영역인 국가 권력은 영적 영역인 교회에 개입할 수 없다는 두 영역 교리를 기반하였는데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에 근거하여 두 왕국설을 주장한다.<sup>22)</sup> 이를 계기로 신학적 원리가 교회의 밖으로까지 적용되게 되었다. 김창환은 교회 공공성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기여를 ‘민주적 권위 개념을 세우게 됨으로 공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sup>23)</sup>

남미의 해방신학, 유럽의 정치 신학, 그리고 미국의 공공신학 등 현대의 신학은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이들의 회복과 자유, 공공선의 확립을 중요시 여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24)</sup> 해방신학은 수백년간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식민 지배아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억압 가운데 있던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신학이다. 해방신학은 당시 신학과 교회가 남미의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가난한 자와 피억압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방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érrez)는 식민 지배 세력의 억압 중에도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가난한 자들의 고난이라는 삶의 정황이 바로 신학의 자리라고 주장하였다.<sup>25)</sup>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행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며 이것이 신학이고, 바로 교회의 책무라고 구티에레즈는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정치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신학이 나타났다. 아우슈비츠의 인종학살 앞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지도자들은 침묵하였다. 기독교 신학이 가져야할 공공성 대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며 공적 영역과는 무관하다는 당시의 생각이 정치적 대응에 한계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세계와 공적관계를 맺지 않는 기독교의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학의 기독교적 정체성 없이 세상과 공적 관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몰트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책임이 있기에 신학이 사회의 공공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6)</sup>

20세기 북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공공신학 역시 그리스도교의 공적 목소리 회복을

22)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66.

23) *Ibid.*, 68.

24)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신학전망』 177(2012), 161.

25)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성영 옮김, 『해방신학: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서울: 분도출판사, 2000), 233-234.

26) 위르겐 몰트만/ 광미숙 옮김,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8-9.

목적으로 한다. 공공신학은 정치, 사회, 문화 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와 신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공공신학은 공공선 성취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사회 계몽에 참여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가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던컨 포레스트(Duncan Forrester)는 공공 신학이 구현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교회와 기독교 신학이 그리스도인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식과 삶의 현장에서의 체험과 실천에서 나온 내용을 전하고 흡수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식이다.<sup>27)</sup>

현대의 사회참여 신학은 지역과 등장 배경에 따라 해방신학, 정치신학, 혹은 공공신학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 내에서 신학과 교회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IV. 교회 공공성 실천의 실제

돈 브라우닝(Don Browning)은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 심장에서부터 철저하게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8)</sup> 모든 신학의 분과가 근본적 실천신학으로 불리는 신학의 세부 학문분과여야 한다고 말할 만큼 신학의 실천성을 강조한 것처럼 실제 교회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목회상담이 공적 신학임을 보이고 실제 지역 교회 안에서 목회상담을 통해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공공성을 추구하는 목회상담

목회상담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 안에서 공적 신앙을 구현하고 실천한다. 목회상담학자인 안톤 보이슨(Anton Boisen)은 신학 교육에 있어 기록된 문서를 통한 배움을 넘어 목회 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될 사람, 즉 살아있는 인간문서(The living human documents)를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이와 같은 보이슨의 주장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러티브와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

27) Duncan B. Forrester, *Truthful Action: Exploration in Practical Theology* (Edinburg: T&T Clark, 2000), 118.

28) Don S. Browning,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eapolis: Fortress, 1991), 7-8.

29) Charlse Gerkin, *The living Human Documents*(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37.

다. 실제로 한 사람과 그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구하는 것이 교회와 신학 실천의 현장에서 핵심적임을 알게 되면서 심리학을 활용한 개인의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인간문서”에 대한 연구가 누적되고 목회적 돌봄이 교회 내에서 확장되면서 목회상담가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개인의 심리적 돌봄과 더불어 사회구조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목회적 돌봄은 심리적 차원의 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가난과 억압, 사회적 배제가 만연해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목회신학자 맥리모어는 “살아있는 인간관계망”(The living human web)을 제시하면서 목회상담운동의 흐름이 개인에 대한 돌봄에서 사회, 문화, 종교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0)</sup> ‘살아있는 인간문서’가 심리학과 상담학 등의 학문 분야와 연계하여 개인 돌봄에 집중하였다면 ‘살아있는 인간관계망’은 정치적이고 해방신학적인 사회 돌봄으로 전환하게 한 것이다. 맥리모어는 현대 목회상담의 주제들에 대해 공적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1)</sup> 목회상담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등의 주제들은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 종교적 영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대한 신학과 교회의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sup>32)</sup>

한 개인의 고통은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차별, 개인 차원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세대를 이어 오는 가난, 억압 및 소외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고착화된 모순적이고 부당한 차별적인 현실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변화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목회상담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추구해왔던 공공성을 함께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

## 2. 교회 상담센터를 통한 공공성 실천의 실제

교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의 사례가 되는 교회를 살펴봄으로서 목회상담을 통한 공공성 실천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

---

30) Bonnie J. Miller-McLemore, “The Living Human Web: Twenty-Five Year Retro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30(2018), 361-362.

31) 바니 밀러-맥리모어, “공공신학으로서의 목회신학: 네 번째 영역에서의 혁명.” 낸시 램지 편, 문희경 옮김. 『목회상담의 최근동향』 (서울: 그리심, 2012), 74.

32) 정희성, “목회상담학 관점에서 구약성서 다시 읽기: -이방인 정복에서 신앙인의 영적 순례 이야기로-,” *신학과 실천* 42(2014), 450-451.

해 보고자 한다.<sup>33)</sup> 상담센터를 통한 공공성 실천의 실제에 대한 사례 교회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님의 사람들교회’와 그 부설 상담센터인 ‘상담센터 품’을 살펴볼 것이다. 개척한지 6년 된 사례 교회는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의 소외 계층을 돌보는 등 교회와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교회는 2017년 개척하면서 지역 사회 가운데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매해 추수감사절 지역사회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의 공공기관과 소통하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사회에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수 있다는 것과, 타 지역에 비하여 폭력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 청소년들이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상담센터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맥리모어가 언급한대로 살아있는 인간망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사람들교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지역사회 내 소외 계층 대상의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에 비영리 단체의 형태를 갖추었다. 센터가 설립 된 후에는 수요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 취약 계층에게 있어 일상의 회복을 위해 교육적 자원의 제공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들을 공감과 적절한 경계를 통해 양육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취약 계층의 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예방하는 방안이 된다. 본 사례 교회의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에 기반한 부모 교육과 가족체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구체적 내용들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실시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목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회상담 부모 교육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녀의 연령, 거주 지역, 부모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혹은 프로그램 안에서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후 참여자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이 이루어진다. 지역 사회 안에 홀로 있을 때에는 누구와도 교류하지 못하고 고통하던 문제들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또 다른 구성원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님을 인식하고 서로의 정보도 교환하게 된다. John Patton은 목회상담은 목회자나 목회상담가 한 사람의 주도적 돌봄의

---

33) 본 발표의 사례 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2017년 9월 개척하여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교회이다. 2019년 9월 비영리 단체로 본 발표자가 기관장으로 있는 상담센터 품을 설립하여 지역사회내의 소외 계층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태가 아닌 회중이 함께 돌보는 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돌봄 공동체는 교회 내에서는 목양 과정 중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교회 밖, 지역 사회 구성원들,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소외 계층에게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교회 상담센터의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들을 통해 “돌봄의 생태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인간망”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인간망의 강화’ 과정이다. 지역사회 취약 계층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인간 망”을 구성한 이후에는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망의 주요 지점들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훈련과 학습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목회상담은 끊임없는 훈련과 실습의 과정이 요구된다. 상담 이론을 사례와 상담사에 맞게 통합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상담자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사례 교회 내 상담센터에서는 매 학기 상담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하여 상담자들의 이론 학습을 돕고 내담자를 만난 센터 내 상담의 사례 회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담자들이 상담 중에 직접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타기관의 목회상담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 서로의 교류와 성장에 힘쓰고 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돌봄과 목회상담의 과정 중에 겪게 되는 목회상담사들의 좌절이나 한계에 대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돌봄 제공자의 공동체가 된다.

형성된 ‘살아있는 인간 망’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상담센터 및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아날로그식 홍보가 필요하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지 못해 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면서 동시에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소외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디지털 문해력이 낮거나 실제 디지털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이 근처에 있음에도 고립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홍보물들을 제작하여 취약 계층 밀집 지역에 배부하고 지역사회 게시판을 활용하여 교회 내 상담센터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인간 망의 연대’이다. 지역 사회를 살펴보면 공공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들, 공공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들과 연대하고 연합할 경우, 지역 사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더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사례 교회의 경우, 교회 상담센터가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MOU를 맺고 소속 상담사들이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다. 학대가 발생한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성격, 심리내적 차원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목회적 돌봄과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 아동이나 가해 부모가 있는 폭력 가정의 일상에 변화가 나타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본 사례 교회의 소재지에 있는 학대 아동들의 거주지인 그룹홈과 연계하여 공동생활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퇴소를 앞두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만19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등을 진행하여 자립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사회 안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환자 및 보호자 상담, 홀로 기거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알콜 중독, 도박 중독 상담을 진행하여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다른 비영리단체와 연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상담이 회복을 위해 필요함에도 비용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교회 내 상담센터에서 지원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변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살아있는 인간 망'을 확장하고 공공기관에 지역 사회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과 의견을 제안한다. 토론회나 정기 회의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이면서 사회 생태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회들은 살아있는 인간망으로 다른 망과의 연대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회는 지역 사회 안에 빈틈없이 자리 잡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공적 역할에 지역 교회는 어떤 단체나 기관보다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다. 공공선을 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지원자들을 모을 수 있고, 각 교회 내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내 공공성 확립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 본 교회 상담센터의 경우, 독거노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 할 때 지역 교회 및 사례 교회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청소 및 식사를 제공한다. 공공기관과 지역 교회, 교회 상담센터가 살아있는 망이 되어 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교회는 현실 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도널드 위니컷이 주장한 중간세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쟁 사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사회는 이들에게 발 들여 놓기에 두려운 곳일 수 있다. 교회의 공공성 실천 노력 과정에서 이들과 맺게 된 관계성으로 인해 교회는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안전한 중간세계가 된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불안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해소해 나간다. 본 사례 교회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 한 지적장애 청소년은 교회 내에서 예배 영상 송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래 및 교사들과 상호 관계 맺기를 경험함으로써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의 공공성 실천을 통해 교회에 진입하게 된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상징화한다. 예배는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해방시켜 독립적인 사회의 주체로 세우고 능력, 배경 등의 취약성으로 인

해 주변화된 사람들을 중심이 되게 해준다.<sup>34)</sup> 이들이 함께 하는 예배는 기존의 설교 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회복되어 자유롭게 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스스로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예배다. 선택적 함묵증으로 말 못하던 이가 예배 중 성서를 봉독하고, 자신의 방 안에 고립되어 있던 이들이 교회의 예배 장소에 나온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행동들이 이들에게는 특별한 신앙 고백적 행위인 것이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공공성의 추구, 즉 소외 계층에 대한 돌봄과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소외계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지역 교회와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교회 내의 상담센터 운영을 교회 공공성 실천의 한 방안으로 모색해 보았다.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 V. 나가는 말

만일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가 자신의 절망과 한계에 관심 갖는 한 사람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의 고통과 분노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일어서보자 지켜봐주는 교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뉴스를 접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다. 어디를 보아도 교회가 공적 역할, 공공선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로 가득하다. 소외받고 약한 이들이 있는 한 교회의 공적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는 제한적인 현실 가운데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성의 실천은 녹록치 않다.

본 발표는 작은 교회의 상담센터를 통해 공공선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인 수와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공공성의 실천과 비교하여 볼 때, 가시적인 결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다. 교회는 신학을 삶의 현장과 사회 안에서 실천해내는 주체이다. 작고 무력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서에 근거한다면,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의 공적 역할의 수행은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취약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된다.<sup>35)</sup>

가난한 이들,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 소외와 차별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을 실천하는 많

34) 안선희, “여성주의적 예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예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 10(2006), 194.

35) 이후천, “작은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적 과제,” 『신학과 실천』 26(2011), 223.



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이들의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이 있는 한 모든 교회와 기독교신학의 공공성 실천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구티에레즈, 구스타보./성염 옮김. 『해방신학: 역사와 정치와 구원』. 서울: 분도출판사, 2000.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양극화 전망,” 『Future Horizon』 50(2021), 1-6.
- 김영주, 나진경. “불평등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경험 연구 개관: 경제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7(2018), 313-347.
- 김태완 외.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 김창환. 『공공신학과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 김홍중 외.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램지, 낸시./문희경 옮김. 『목회상담의 최근 동향』. 서울: 그리심, 2012.
- 리치, 케니스./신현기 옮김. 『사회적 하나님: 교회는 왜 사회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가?』. 서울: 청림출판사, 2009.
- 몰트만, 위르겐./곽미숙 옮김.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09.
- 신동균, 전병유. “소득 분포의 양극화 추이: 1997-2003.” 『노동경제논집』 28(2005), 77-109.
-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20.
- 안선희. “여성주의적 예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예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 『신학과 실천』10(2006), 175-198.
- 알렌, 존./ 권정혜 옮김. 『트라우마의 치유』. 서울: 학지사, 2010.
- 이후천. “작은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적 과제.” 『신학과 실천』 26(2011), 219-245.
- 정연득. “목회상담의 공적 역할에 대한 모색: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8(2018), 251-279.
- 정희성. “목회상담학 관점에서 구약성서 다시 읽기: -이방인 정복에서 신앙인의 영적 순례이야기로-.” 『신학과 실천』 42(2014), 445-472.
- 정희완. “신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성찰: 한국적 사회참여 신학을 위하여.” 『신학전망』 177(2012), 146-195.

- 킹, 한스./이홍근 옮김. 『교회란 무엇인가?』. 칠곡군: 분도출판사, 1994.
- 한규승. 『구약 예언서의 공공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Boff, Leonardo. *Trinity and Society*. Maryknoll, NY: Orbis, 1988.
- Browning, Don S.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eapolis: Fortress, 1991.
- Gutiérrez, Gustavo. “The Situation and Tasks of Liberation Theology Today.” In *Opting for the Margins: Postmodernity and Liberation in Christian The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Marty, Martin.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The Journal of Religion* 54(1974);
- Miller-McLemore, Bonnie J. “The Living Human Web: Twenty-Five Year Retro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30(2018), 336-371.
- World Inequality Lab. “Wealth inequalities within countries shrank for most of the 20<sup>th</sup> centry but the bottom 50% share has always been very low.”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accessed August 19, 2023, <https://wir2022.wid.world/executive-summary/>

# 논 찬 1

## “공공성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 상담센터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최 종 일 박사

(신라대학교 / 실천신학 / 목회상담)

### 1. 본 연구의 중심 논지와 공헌점

본 발표는 작은 교회의 상담센터를 통해 공공선을 실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인 수와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공공성의 실천과 비교하여 볼 때, 가시적인 결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수 있다. 교회는 신학을 삶의 현장과 사회 안에서 실천해내는 주체이다. 작고 무력한 이들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서에 근거한다면,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의 공적 역할의 수행은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취약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된다는 가난한 이들,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 소외와 차별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이들의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이 있는 한 모든 교회와 기독교신학의 공공성 실천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 번째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고찰하고 교회공동체의 역할을 제안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를 코로나가 발생하므로 심각해지고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사회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가난

하고 억압받는 사회 계층에 대한 돌봄,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돌봄의 방식, 그리고 용이한 접근 방안에 대한 모색은 현대 교회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취약 계층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양극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 실천신학적 측면에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본 발표는 교회의 사회참여로 공공선 추구를 근거로 제시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자는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한다는 것이 사회적 약자, 경제적 양극화로 운신의 폭이 없는 소외 계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구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그들을 차별과 박탈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회가 이름 지은 구조 안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씌워진 틀을 벗을 수 있는 자유를 알게 하는 것이다. 목회상담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신학과 교회가 추구해왔던 공공성을 함께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 실천신학에서 목회 상담의 실천적 영역의 이론적 근거를 제안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교회 상담센터를 통한 공공선의 실질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교회의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에 기반한 부모 교육과 가족체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구체적 내용들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실시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목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는 목회상담 부모 교육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교회 상담센터가 지역 주민 대상 프로그램들을 통해 “돌봄의 생태환경”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살아있는 인간망”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공공성의 추구, 즉 소외 계층에 대한 돌봄과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소외계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지역 교회와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교회 내의 상담센터 운영을 교회 공공성 실천의 한 방안으로 모색해 보았다.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시도를 한 점에서 가치가 있다.

## 2. 본 연구의 논의점

본 논문의 공헌점과 더불어 논찬자가 느끼는 논의점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구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회 계층에 대한 돌봄,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 교회의 고민으로 약자에 대한 돌봄의 방식, 그리고 용이한 접근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가의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들, 배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양극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자는 이야기한다. 논찬자는 기독교의 본질을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이야기하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회 계층에 대한 돌봄, 모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고자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본질이라고 하는 공공성의 실천방법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지 논찬자의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발표자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발표자는 보이슨의 주장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러티브와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메타인지를 해체하고 개인의 주관성과 경험을 강조한다. 개인의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인식하는 이야기(Story)와 이야기(Story)를 개인이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야기(Narrative)가 존재한다. 발표자가 이야기하는 가난, 차별, 억압, 소외도 개인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러티브가 강조되는 목회상담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인생 주체로서 전문가이다. 고착화된 모순적이고 부당한 차별적인 변화는 일반적 원리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주관성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연구자에게 질문하고 싶다.

논찬자는 연구자가 **'공공성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 상담센터를 중심으로'**이라는 힘든 주제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어려운 시도이고

노력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연구자가 ‘어렵지만 필요하기에’ 전혀 쉽지 않은 주제를 연구하고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고 싶다.

## 논 찬 2

# “공공성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 상담센터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윤 석 주 박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

금번 2023년도 제 89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에 이화여자대학교 구본경 박사님께서“공공성 실천의 주체로서의 교회: 교회 상담센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본고는 최근 들어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등 ‘묻지마’ 폭행과 살인으로 사망과 중상을 입는 사건들이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분노가 범죄로 표출되었다는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과 위화감 조성, 교육과 취업 등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되어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고, 사회 분열 야기와 통합 저해, 정신 건강 위협으로 범죄 발생률이 상승하여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사회분열이 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분열 감정 증가가 61%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불평등이 절도, 살인, 자살률, 마약 및 약물남용, 폭력 증가와도 관련되고 있으며, 학업성취도의 하락, 학교 중퇴율의 증가, 조현병 발병률의 상승, 신체적인 건강의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친사회적인 행동의 감소와 반사회적인 행동의 증가를 유발, 정치적인 대립, 상대적인 박탈감, 생활양식의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분열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과 전략으로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은 필요하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신학적인 관심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양극화는 경제적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의한 무한 경

쟁 정당화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능력주의 가치관에 기인한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와 신학의 개입, 그리고 공공성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했다.

구 박사님은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가 절망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고통과 분노를 듣고 함께 하는 교회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뉴스에서 묻지마 범죄가 자주 보도되는 상황에서 종교적 역할과 교회의 공공적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이유가 가득하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약한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교회의 공공적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작은 교회의 한정된 현실 속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적 역할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본 논고는 작은 교회 내 상담 센터를 통해 공공적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을 제안 하면서, 작은 교회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적 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작은 교회가 가진 자원에 비하면 가시적인 결과와 사회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작고 무력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기반으로 한다면, 작은 교회의 지역 사회를 위한 공공적 역할은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취약성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양극화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와 차별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을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는 회복을 위해 끝없는 역할을 해왔다.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 모든 교회와 기독교 신학의 공공성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옥고를 내 놓으신 구본경 교수님께서서는 심각한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위화감 조성, 교육과 취업 등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되어 부와 가난이 대립되고, 사회 분열 야기와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신 건강 위협으로 범죄 발생률이 상승하여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분열 감정 증가가 61%로 가장 높다고 했다. 불평등은 절도, 살인, 자살률, 마약 및 약물남용, 폭력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고, 학업성취도의 하락, 학교 중퇴율의 증가, 조현병 발병률의 상승, 신체적인 건강의 저하와도 연관이 있는 가운데 교회의 상담실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하신 연구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고 싶다. 본 논문이 양극화로 인한 흉악 범죄 발생의 예방차원과 공공성 실천의 주체인 교회가 상담센터를 통한 교회 역할을 강조한 바에 쓰여졌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 옥고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이고 생각하며, 시대적으로 훌륭한 점을 일깨워준 논문을 읽고 편협한 시각으로 논찬자가



논찬한다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논찬자는 다만 본 논문과 관련하여 논의와 토론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한 것에 불과함을 말씀드리고 싶다.

논찬자가 귀한 논고를 읽으면서 본 논고의 깊이와 대안에 대하여 감탄을 하였으나, 아쉬운 점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작은 옥의 티임을 먼저 알리며, 귀한 논고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면 좋겠다는 소견으로 몇 가지가 밝혀두고 싶은 게 있다. 첫째, 교회 공공성 실천의 과제에서 교회 상담센터를 통한 공공성 실천의 과제로서 교회 내외에서 상담전문가 양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목회 현장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신학교육 중에 상담과 관련된 이수 과목이 적어 공공성실천을 위한 교회 상담실 운영에는 매우 미약하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 또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시간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옥의 티로 보이는 오기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여 보완하면 더욱 더 좋은 논문이 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옥고를 내 놓으신 구본경 박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하여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여 구 박사님의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학회와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 제 2 발표

#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성경적 역할: 출 애굽기 12-13장 연구와 Grace Family Baptist Church 사례분석

문진형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 I. 들어가는 말

다음세대에 대한 교회의 고민은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이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 전수의 실패는 작게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성경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사사기 2:10)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가장 큰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역시 교회를 떠나는 다음세대가 많아짐으로서 교회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90%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을

직면하고 이에 대한 목회적 대안을 찾고 있다.<sup>1)</sup>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80년대와 90년대의 부흥가운데 주일학교 역시 각 교회마다 많은 아이들과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교회마다 주일학교의 유지를 넘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많은 원인이 있고, 사회와 시대가 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존의 주일학교 중심의 교육 목회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과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존의 유치등부나 중고등부의 목회가 그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었다고 진단한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위한 목회에 참여하는가? 얼마나 자녀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가?’이다.<sup>3)</sup>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정 목회(Family Ministry)로 목회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 II. 미국과 한국 교회의 현실과 가정 사역의 배경

### 1. 미국과 한국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에 다음세대와 주일학교에 대한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어려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주일학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년부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 졌다고 보고되고 있다.<sup>4)</sup> 한국기독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통합측의 경우 2010년에 비해서 2020년까지 40%에 가까운 교회학교 인원이 줄어들었으며, 합동측 총회교육 개발원에 따르면 유치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와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sup>

---

1) Timothy Paul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how your church can equip parents to make disciple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11, 45. 저자에 따르면, 지역과 교단, 교회의 크기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Ibid.*

3) *Ibid.*

4)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청소년 신앙, 코로나 이후 어른보다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나!” 「넘버스」, 101(2021), 2.

목회자들은 이러한 다음세대의 문제를 이제 가장 시급한 목회 현안으로 보고 있다. 최근 통계(2023년)에 의하면, 담임목사들이 현재의 목회적 환경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것에 1번이 다음세대 교육분제이며 그 선택 비율은 거의 절반에 다 다르고 있다(46%). 이것은 다음세대의 교육 문제가 더 이상 개별 교회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 전반이 겪고 있는 목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2030년에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도 있으며,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가능성이 있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음세대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시도되었다. 하지만 교회학교와 다음세대의 상황은 뚜렷하게 나아지는 결과들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교회에서 같은 효과나 결과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형인 이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의 문제를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목회자들 역시, 교회학교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육 구조의 변화 필성에 대해서 90% 가까운 동의를 보이고 있다.<sup>6)</sup>

이러한 방법들의 일환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sup>7)</sup>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는 누군가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가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가정을 신앙 교육의 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2. 가정 사역(Family Ministry)의 배경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다음세대와 교회 학교 문제에 대한 고민은 미국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다.

이 이후로 미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초기에 그 노력의 대부분은 부서 사역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목회적 방법을 도입하는 일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많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목회 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5) 한국기독일보, “2030년에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 비관 전망”, 2022. 2. 8.

[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30&id=organization](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30&id=organization)

6)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부모,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우고 싶다’ 82%,” 「넘버스」, 95(2021), 4.

7) 한국기독일보, “교회학교 위기 해법, 부모교육에 달렸다” 2022. 5. 11.

[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64&id=organization](http://kidokilbo.com/news/view.php?wr_id=1564&id=organization)

그 방법들이 교회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목회적 시도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목회에 관련된 방법들이 제시되고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에 관한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셸리(Chris Shirley)는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이 포커스를 교회와 사역자에게만 두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한다.<sup>8)</sup>

분명히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다루는 부서의 담당자들은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 부서에 참여하는 아이들의나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배웠다. 따라서, 그 목회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목회적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사역자들은 신학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나온 목회의 전문가들이며,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는 리더들이다. 이들에게 보다 시대에 맞고, 아이들에게 효율적일 수 있는 목회적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단기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셸리는 이러한 방법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교회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아이들이 일주일에 교회에 오는 날은 주일 하루 뿐이며, 그 중에서도 그 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예배와 공과공부 시간으로 국한된다. 그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교회가 놓친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가정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사이의 관계이며 조직이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성경은 또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전까지의 교육 방식과 목회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을 목회와 교육에 중심에 두는 목회활동을 가정 사역이라고 부르고 있다.<sup>9)</sup> (Family Ministry) 하지만, 가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에,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목회적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다. 이에 따라서 학자들의 정의도, 그 정의에 따른 분류도 약간씩

---

8) Chris Shirley, Family Ministry and the Church: A Leaders's Guide For Ministry Through Families. Randall House, 2018, 9.

9) Timothy Paul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how your church can equip parents to make disciple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11, 32.

은 차이가 있다. 폴 렌프로의(Paul Renfro) 경우 가정사역(Family Ministry)를 “부모를 교회 안에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선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의도적이고 항구적인 목회의 과정” 이라고 정의했다.<sup>10)</sup> 크리스 셸리는 가정사역은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적인 가정의 모델을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 안의 각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각각의 부모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총체적인 과정” 이라고 하였다.<sup>11)</sup>

티모시 존스(Timothy Paul Jones)와 챗 클락(Chap Clark) 따르면 가정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은 다음과 같은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가정 사역은 가정에 필요한 교육이나 기타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한 상담이나, 불안정한 가정들을 위한 치료, 그리고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가르치는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에서 가정들을 위하여 사역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기반 사역 (church based family ministry)이라고 부를 수 있다.<sup>12)</sup>

다른 한 가지 방식은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이 가정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목회방식이다. 기존의 한국교회들이 익숙한 가정사역의 표어인 “교회같은 가정, 가정같은 교회”가 이 분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목회는 개별 가정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교회 전체가 어떤 관계로 맺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마지막 방식은 부모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 관계를 목회의 중심으로 보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의 가정 사역은 부모들이 영적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가정 사역이 가정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제공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10) Paul Renfro, Brandon Shields, and Jay Strother, 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B&H Publishing Group, 2009, 37.

11) Chris Shirley, Family Ministry and the Church: A Leaders's Guide For Ministry Through Families. Randall House, 2018, 9.

12) Chap Clark, Adoptive Church: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Emerging Generation Belong(Youth, Family, and Culture). Baker Academic, 2018. 34.

면, 현재의 가정사역은 이 Family Disciple Making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정 사역의 가장 큰 컨퍼런스인 D6나 Randall House 출판사, 그리고 미국 내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의 교회들이 이러한 가정 사역의 방식을 도입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 셐리 교수 (Chris Shirley, SWBTS)는 이러한 방식의 가정 사역을 Family Discipleship Model, 혹은 Family Disciple-Making 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정사역이 이전까지 진행되어온 문제들을, 특히 청소년들이 높은 비율로 교회를 떠나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목회적 대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부모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 목회적 프로그램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더 나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가 아니라, 떠나는 이들은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실패했는가? 왜 교회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전달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였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둔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sup>13)</sup>

가정 안에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의 성경적 근거는 구약에서의 가정 교육, 특히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다음 세대 교육 방식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출애굽기 12-13장의 유월절-무교절에 대한 가르침과 신명기에서의 신앙 교육

#### 1. 출애굽기의 유월절-무교절에 대한 가르침과 신앙교육에서의 가정의 역할

유월절과 무교절은 성경을 통하여서 명령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다.<sup>14)</sup> 유월절에 관한 성경의 여러 기록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와

---

13) Timothy Paul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how your church can equip parents to make disciple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11, 52.

14) 이은우, “구약 축전의 발전 과정 연구: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 『구약논단』, 2011, No.



신명기의 기록은 가정 절기로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은 규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며, 신앙을 고취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유월절에 행하여 지는 모든 예식은 가족의 어른과 가족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령되어 있으며,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과정 중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이 예식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는 이에 대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예식은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킬 것이 명령되어 있다.

처음부터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한 방편으로, 가족 서로 간의 함께 하는 신앙 훈련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녀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기록된 이 방법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명절을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지키고 있다. 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방식으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족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 것은 현대의 교회가 가정과 신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좋은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현대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sup>15)</sup>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순서로 나누어 지게 된다.

첫 번째는 ‘하메츠 태우기’ 라고 하는 누룩 제거의 순서이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

17, 156.

15) 이스라엘 문화원, [www.ilculture.or.kr](http://www.ilculture.or.kr), 유월절 관련 부분 참조,

[http://www.ilculture.or.kr/2022\\_culture/holiday.php?page=1&mode=view&PGn=6&iKeyNum=7&strSkin=gallery\\_no&pgCode=&SVALUE=YToyOntzOjg6ImtleWZpZWxkIjtzOjc6InN1YmplY3QiO3M6Mzoia2V5IjtzOjA6IiI7fQ==](http://www.ilculture.or.kr/2022_culture/holiday.php?page=1&mode=view&PGn=6&iKeyNum=7&strSkin=gallery_no&pgCode=&SVALUE=YToyOntzOjg6ImtleWZpZWxkIjtzOjc6InN1YmplY3QiO3M6Mzoia2V5IjtzOjA6IiI7fQ==).

12:5) 칠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지니라 (출애굽기 12:17-20)

모든 유교물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칠일 동안 먹어야 한다는 규정은 출애굽기 12장에서만 두 번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벌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수로라도 유교물이 들어간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유교물을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간동안 집에서 제거 하게 되었다.<sup>16)</sup> 이러한 전통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모든 유대인 가정의 어머니가 집안에 남아 있는 유교물이 없도록 살살이 청소를 한다. 그 다음은 자녀들의 차례이다. 자녀들은 촛불을 켜서 들고 다니면서 침대 및 옷장 뒤 등 혹시라도 유교물이 남아 있을지 모르는 곳들을 청소하고, 자신의 방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빵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가 없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이 끝나면 유월절을 위한 식기와 그릇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준비한다.

두 번째는 유월절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유교물을 포함하지 않는 물과 밀가루로 만든 마짜와 쓴나물, 정강이 뼈, 삶은 달걀, 파슬리, 양상추, 소금물, 하로셋을 준비한다. 하로셋은 진흙의 색과 비슷한 양념으로 벽돌을 굽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세 번째는 집안의 가장이 인도하는 유월절의 식사이다. 준비된 음식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식사의 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기원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과정과 이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출애굽기 12:26-27, 출애굽기 13:8, 출애굽기 13:14, 신명기 6:20).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출애굽기

---

16) Douglas K. Stuart, The New American Commentary, Exodus, B&H Publishers, 2006, 281.

12:26-27)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출애굽기 13:8, 1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됴이나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출애굽기 13:14, 15)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나 하거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20-25)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유월절 식사에서 자녀들이 하는 질문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 번째, 왜 이 밤에 우리는 무교병을 먹습니까? 두 번째, 왜 이 밤에 우리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 왜 우리는 이 밤에 소금물을 짠 풀을 먹습니까? 네 번째,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이유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과정을, 본인이 배워온 그대로, 그들의 아버지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 3. 성경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드러나는 가정 신앙 교육의 성격

#### 1) 신앙 교육은 부모의 의무이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설명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가르침이 세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하나님의 법들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모세대는 자녀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 2) 정보 전달 이상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신앙고백의 연속이어야

---

17) Terence E. Fretheim,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Exodus, John Knox Press, 1991, 144.

하며, 경험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sup>18)</sup>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인 전통,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예배적인 전통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의 예배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는 찬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함께 집을 치우고, 음식을 함께 준비하며, 부모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녀들에게, 이 과정은 잊지 못할 신앙의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이 참여한 과정들과, 음식들의 의미를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왜 이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 3) 신앙 교육은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절기는 해마다 지켜져야 한다(출애굽기 12:10)

가정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절기 때 마다 이 의식과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 성장 과정을 지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자녀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연속적 신앙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 4) 가정신앙교육의 전제는 부모의 신앙이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예배의 주체는 부모이다. 부모는 주도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가졌던 신앙의 경험 역시 요구된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고, 매년 반복 되는 교육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획도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행동이 자녀들이 존경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신앙 생활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만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

---

18) John I. Durham, Word Biblical Commentary, Exodus, Word Books Publishers, 1987, 163.

19) Terence E. Fretheim,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Exodus, John Knox Press, 1991, 144.

결론적으로 부모가 먼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부모는 자녀에게 대해서 책임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신앙을 물려 주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가정 구성원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 IV. 출애굽기 신명기의 가르침과 가정 사역(Family Ministry)의 연계성

티모시 존스의 가정 사역의 분류 가운데서, Family-Integrated Model과 Family-Equipping Model은 그 기초를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가정 사역의 1차적 목표는 자녀세대를 향한 부모세대의 성경적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고,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며, 가정 안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을 전환하는 교회들은, 급진적으로 나이와 학년에 따른 교회학교를 완전히 철폐하고, 예배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행사를 세대 통합으로 진행하거나 (Family-Integrated Model), 교회의 기존 형태를 유지하지만 모든 목회의 지향점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제자훈련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Family-Equipping Model). 이 두 가지 목회 방식은 부모에게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차적 책임을 지우고, 이를 각 가정에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교회가 목회적 지원을 한다는 점은 같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이 변화를 정착시키는 가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천천히 바꾸어 갈 것인가의 차이는 목회적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목회적 대안은, 성경적인 가정 사역의 목회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목회적 목표를 부모 세대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는 일차적 장소와 내용이 부모에 의해서 준비되고 결정되고 진행되며, 이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복음을 경험시키고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하고, 교회가 이 모든 일을 부모와 함께 진행하는 Family-Equipping Ministry 라고 볼 수 있다.

이 목회 방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와 성도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Coordination around a Strategic Question). 이것은 모든 목회적 결정을 하거나 교회의 행사를 준비할 때, 이 결정이 부모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목적에 부합한가? 혹은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같이 질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세대의 인식 변화이다.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혹은 가정 안에서 공유되어야 할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닮아 가려는 제자의 삶이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기적 목표의식과 꾸준한 노력이다. 이러한 목적들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목적으로 자녀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한 번의 세미나와 수련회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변하지 않는 목표 의식과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세대 통합을 위한 노력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제자화 라는 과정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믿은 자들과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세대 간에 서로 감사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가정 내에서의 신앙 교육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모 세대의 교육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모 세대의 교육은 그 성과와 기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여섯 번째는 영적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이끌어줄 가정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돌봄, 영적 교류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정 사역은 이전까지의 교육 목회에서 네 가지 관점의 변화를 기반으로 출발한다. 먼저 프로그램으로서의 사역을 거부하고, 부모와 자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향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들의 제자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세 번째, 이를 위하여서 부모 세대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가정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네 번째,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가정의 제자화 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한다.

이 네 가지의 변화는 단순히, 교회 학교 부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 가운데, 자녀들의 제자화의 책임을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회 방향 가운데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 V. 가정 목회(Family Ministry)로의 전환을 위한 실례

브렌트우드 교회(Brentwood Baptist Church, Brentwood, TN)는 부모 세대가 자녀의 제자화에 책임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Parent Equip Series)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성경공부 인도를 위한 부모 학습 계획(Lesson Plan), 자녀들과의 대화를 위한 안내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기도 제목 (Conversation Starter and Prayer Prompt), 자녀와 함께 작성하는 워크시트 (Worksheet and Survey) 등이 제공된다. 이 중에 성경공부 안내서는 매주, 나머지는 매월 제공이 되고 있다.

티모시 존스는 가정목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 번째는, 교회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생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세미나, 현재 자신의 가정에서 신앙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들과,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조사 및 토의, 자신의 자녀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유, 그리고 함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 등을 함께 진행하며, 자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 받았음을 인식한다.

두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신앙 훈련이다. 이렇게 인식 변화가 진행되면서 함께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단순히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이 함께 겪는 상황들과,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Faith Talk)을 의미한다. 교회는 여기에 대한 교안을 제공하고, 이 이후에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 (Faith Walk)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격려하는 것이다. Faith Talk 과 Faith Walk을 위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회에서 이들의 활동을 소식지나 주보를 통하여서 격려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매주 발송한다. 세례, 입교, 졸업 등의 자녀들의 행사가 가정과 교회의 축하와 축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다.

네 번째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 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이다.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가정 중심의 제자 만들기 라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기존과 다른 신앙적 경험을 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인식의 변화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 리더십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보다 보우캄은 가정 목회를 위하여서 다음의 방법들을 제안한다. 먼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 인위적으로 부서를 나누지 않는다. 모든 목회 활동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세 번째, 복음의 증거와 제자화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 번째,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이다.

이를 위하여서,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관의 확립, 가정 예배와 가정 제자화를 위한 가이드 제공, 지속적 교육 기회의 제공, 부모를 성경적 리더로 육성을 말한다.

## V. 기독교교육과 교육목회에 대상으로서 가정 사역

지금의 한국 교회와, 부모 세대는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0)</sup> 이러한 상황이야 말로, 대안적 교회 교육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세대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는 성경의 요구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의 상황은 같을 수 없다.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교회에서 가정사역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미국처럼 온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적을 수도 있고, 자녀들만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사역이 연구되고 목회의 방향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족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부모 세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에게 실제로 가르치는 기회,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현재의 한국교회에서 시도할 수 있는 변화이다. 부모 세대를 변화시

---

20) 목회데이터연구소, “크리스천 부모, ‘자녀 신앙 교육 방법 배우고 싶다’ 82%,” 「넘버스」, 95(2021), 4.



키는 것은 장년 교육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공간이나 재정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교회가 현재의 목회 방식에서, 장년 성경공부의 초점을 가정 제자화 라는 것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독교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 목회의 대상으로서 가정과 부모 자녀들에 대한 이해,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와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제자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Curriculum)과 장, 단계적인 교육 목표의 수립,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Lesson Plan)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및 이를 전공하는 목회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이 목회자의 양성과정과 신학교에 학업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출발점은 교회와 목회자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VI. 나가는 말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며 실천하는 장(場) 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기 동안 교회학교 위주의 다음 세대 교육이 진행되면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제자화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주일학교의 문제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를 가정을 통하여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일이 중요하기에, 다음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기에, 교회와 신학교는 가능한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 봐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기독교교육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의 중심에 가정을 놓고 하는 가정 사역(Family Ministry)도 이러한 대안 중의 하나로서 고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대단위의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어떤 교회에서도 시도가 가능하다. 가정 사역 세미나를 통한 인식 변화와, 목회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면, 가정 사역(Family Ministry)은 현재 교회가 고민하는 주일학교와 다음세대의 문제에 하나의 가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이정관. “성경적 기준의 삶을 위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신학과 실천」42, (2014. 11), pp. 639-661.
- 이정관. “자녀의 자존감 형성을 위한 부모의 기독교 신앙적 양육태도.” 「신학과 실천」73, (2021.02), pp. 613-637.
- 함영주. “청년이 인지한 아동기 부모-자녀 애착이 인성 및 영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실천」53, (2017. 2), pp. 551-580.
- 이정관. “교회 교육과정으로서의 가정사역 실행계획.” 「신학과 실천」24(2010. 9), pp. 239-267.
- 신현광, “교육목회와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고찰.” 「신학과 실천」47(2015.11), 373-399.
- Anthony, Michael J. "The Morphing of the Family." in *A Theology for Family Ministry*. Edited by Michael Anthony and Michelle Anthony, 2-23. Nashville: B&H Academic, 2011.
- Voddie Baucham Jr. *Family Driven Faith: Doing What it takes to raise sons and daughters who walk with God*. Crossway Books: Wheaton, IL, 2007.
- Balswick, O. Jack and Judith K. Balswick. *The Family: A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Hom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Grudem, Wayne. *Systemic Theology: An Introduction to Bible Doctrine*. Grand Rapids: Zondervan, 1994.
- Terence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 William H. C. Propp. *Exodus 1-18,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4.
- John I.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 Dallas: Word Books, 1987.
- Douglas K. Stuart. *Exodu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B & H Academics, 2006.

- Paul Remfro, Brandon Shields, Jay Strother, Randy Stinson. *Perspectives on Family Ministry: Three views*. Nashville, TN: B & H Academics, 2009.
- Timothy Paul Jones. *Family Ministry Field Guide: How Your Church can equip parents to make disciples*. Indianapolis: Wesleyan Publishing House, 2011.
- Chris Shirley. *Family Ministry and the Church: A Leader's Guide For Ministry Throught Families*. Nashville, TN: Randall House, 2018.
- Randy Stinson and Timothy Paul Jones. *Trained in the Fear of God: Family Ministry in Theological, Histor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Kregel, 2011.
- Ron Hunder Jr. *Recalibrate: A New Measure for Family Ministry*. Nashville, TN: Randall House, 2019.
- Timothy Paul Jones and Jon David Trentham. *Practical Familyu Minsitry: A Collection of Ideas for Your Church*. Nashville, TN: Randall House. 2015.
- Reggie Joiner. *Think Orange: Imagine The Impact when Church and Family Collide*. Colorado Springs: David C Cook. 2009.



# 논 찬 1

##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성경적 역할: 출 애굽기 12-13장 연구와 Grace Family Baptist Church 사례분석”에 대한 논찬

오 경 환 박사

(총신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 I. 총평

본 논문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당면한 심각한 현실을 밀도 있게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성경적 대안으로서 가정의 제자화를 실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 분석을 통해 구약 시대의 언약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전수하였는가를 의식과 제의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현대의 한국 교회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사역의 모델로 가정 구비 사역(Family-Equipping Ministry)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실제적 예시 교회로 브렌트우드 침례교회(Brentwood Baptist Church, TN)의 사역들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담임목사를 포함한 사역자와 장년 부모들이 먼저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가정을 제자화하는 것,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 II. 토의 질문 및 제언

귀한 옥고를 발표해 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리며 몇 가지 토의 질문 및 제언을 드린다.

첫째, 먼저 용어의 정의와 기술에 관한 질문이다.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한국 교회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미취학 부서부터 포함하여 좁게는 청소년부 혹은 중고등부, 넓게는 대학부 혹은 청년부(결혼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는 용어가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는지, 또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떠한 범위와 수준까지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묻고 싶다.

둘째, 연구자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현실과 가정 사역의 배경을 다루는 장에서 한국 교회의 현실은 여러 유의미한 통계를 통해 소개하였지만 미국 교회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소개한 것처럼 미국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진단하는 부분이 포함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진단 혹은 통계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연구자는 티모스 존스 교수의 가정 사역 모델을 소개하면서 가정 구비 사역을 한국 교회가 채택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였다. 가정 구비 사역과 크리스 셸리 교수가 말한 가정 제자화 사역과는 어떠한 연관성, 맥락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티모스 존스 교수가 말한 가정 사역의 모델 중 한국 교회 내 가정 통합 사역이나 가정 기초 사역이 실제로 사역에 도입되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브렌트우드 침례교회처럼 한국 교회 내 가정 구비 사역을 통해 가정의 제자화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준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논문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성경적 가족사역에서 구약의 인용뿐 아니라 신약 내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가족 사역이 연구되고 소개된다면 보다 폭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III. 마무리

한국 교회는 지난 20세기 큰 성장을 경험하였지만 21세기 정체기를 지나오면서 더 큰 혼란 속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자주 언급되었던 '다음세대'는 이미 '올드세대'가 되었고 골든타임마저 놓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긴급하고 급박한 다음 세대의 현실을 구체화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경적 대안으로 가정 사역의 실천적 모델을 소개하고 제안한 본 논문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의 가정 사역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가정 사역과 관련된 연구와 이에 대한 토의와 토론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본 논문의 발제로 수고해 주신 개신대학  
원대학교의 문진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논평을 마친다.





## 논 찬 2

#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의 성경적 역할: 출애굽기 12-13장 연구와 Grace Family Baptist Church 사례분석”에 대한 논찬

김 정 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

### I. 논문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 주일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한계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신앙교육의 모델을 제시한다. 문진형 박사는 가정신앙교육의 성경적 근거를 출애굽기 12-13장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에서 찾는다. 또한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의 사례를 모범적인 가정신앙교육의 모델로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의 교회학교의 감소, 즉 신앙전수 실패의 주요 책임을 가정신앙교육의 부족임을 지적하며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을 통해서 교회학교의 존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현실은 비슷하다. 이전에도 한국 교회학교의 인원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목회자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그 해결책으로 가정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교회는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초기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교회학교가 가정이라는 영역을 간과해 왔던 점을 교회학교 쇠퇴의 원인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크리스 셸리(Chris Shirley)는 교회학교에 관련된 문제의 책임을 교회의 사역자에게만 두는 점을 지적한다. 티모시 존스(Timothy Paul Jones)는, 교회에서 놓친 “가정을 목회와 교육의 중심에 두는 목회활동을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이라고 부르고 있다.” 존스와 찹 클락(Chap Clark)은 “가정사역은 가정에 필요한 교육이나 기타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가정사역은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이 가정과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목회방식이다.” 이는 부모 자녀 관계가 이 사역의 중심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의 성장을 꾀하는 방식이다. 이 가정사역의 중심이 되는 목표는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출애굽기 12-13장에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성경적인 가정사역의 모델을 보여준다. 유대인은 유월절기를 지키며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한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질문을 던지고 부모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한다.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으로 첫째, ‘하메츠 태우기’라는 누룩 제거의 과정을 실천한다. 어머니가 집 안에 남아있는 유교를 없애고 자녀들은 혹시라도 유교와 빵이나 과자 부스러기가 남아있는지 살피는 일을 한다. 둘째, 유대인들이 벽돌을 굽던 노예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 음식을 만든다. 셋째, 가정은 유월절 식사를 인도하는데 이 식사에서 자녀의 질문에 아버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출애굽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한다.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정 신앙교육의 특징은 첫째, 신앙교육의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가정 신앙교육은 부모의 신앙고백이 연속되어야 하며 자녀들에게 신앙 경험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셋째, 이런 가정 신앙교육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모가 가정신앙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의 모범이 되는 신앙이 중요하다. 즉, “부모가 먼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존스의 가정 사역의 분류 가운데서, Family-Integrated Model과 Family-Equipping Model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다. 부모가 가정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곳이며 교회가 부모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는 Family-Equipping Ministry가 한국교회에서의 목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첫째, “교회와 성도 모두가 현재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부모세대의 인식 변화이다.” 셋째, “장기적 목표 의식과 꾸준한 노력이다.” 넷째, “세대 통합을 위한 노력이다.” 다섯째, “가정 내에서의 신앙 교육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모 세대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영적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적극적

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도와야 한다. 이런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존 교육 목회에서 네 가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프로그램으로서의 사역을 거부하고 부모와 자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향을 목표로 한다. 둘째, 부모가 자녀들의 제자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셋째, 이를 위하여 부모 세대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가정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넷째,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가정의 제자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한다.” 이 관점의 변화는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공유하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브렌트우드 교회(Brentwood Baptist Church, Brentwood, TN)의 Parent Equip Series라는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제자화에 있어서 부모가 책임 있는 리더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존스의 가정목회 정착을 위한 제안은 첫째, “교회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생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Faith Talk와 Faith Walk를 통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 훈련이다.” 셋째,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격려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 활동 전반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즉, 교회 리더십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가정 목회를 위한 보우캄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구성원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둘째, “인위적으로 부서를 나누지 않는다.” 셋째, “복음의 증거와 제자화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넷째,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 교육이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 교육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회 교육의 모델이 필요하다. 성경은 가정사역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전공 목회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정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와 목회자의 인식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

## II. 논문의 기여

문진형 박사는 쇠퇴해 가고 있는 한국 교회학교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을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주요 장이라고 강조한다. 그 성경적인 근거를 출애굽기 12-13장에서 찾고 있으며 다음세대의 기독교 신앙 전수와 제자화에 대안으로 가정사역(Family Ministry) 모델을 제시한다. 이런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은 코로나19 이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 저자의 연구는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큰 기여

를 한다.

첫째, 저자는 교회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목회자와 부모의 시선을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돌리고 있다. 저자가 근거를 두고 있는 출애굽기 12-13장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일을 통한 신앙교육의 모델은 기존의 교회학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동안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간과해 온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직시하게 한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교회와 목회자가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실패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분산시킨다.

둘째, 저자는 자녀의 가정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과 같이 “부모가 먼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녀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함께 협력하는 Family-Equipping Ministry 모델을 한국 교회에 적합한 가정사역 모델로서 제안한다. 이 모델은 가정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의 부담을 교회가 나누어지는 모델로서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지는 것을 지향한다.

셋째, 저자는 가정신앙교육의 반복적인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교회학교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영성형성에 있어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한국 교회학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Family-Equipping Ministry 모델을 제시하면서 저자는 세대 통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치는 현재 같은 학년이나 또래 집단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학교 교육의 단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여러 세대가 공존하며 상호관계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연령층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세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세대를 접하는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의 성인 예배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돕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진형 박사가 제안하는 부모와 교회가 함께 노력하는 가정신앙교육의 강조는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교회학교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III. 토의를 위한 질문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신앙교육의 필요성 인식에서 출발한 저자의 연구에 관한 토의를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본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환경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하다. 유대인의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비롯한 기독교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이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진 신앙교육과 성 프란치스코가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로 살 것을 소망하며 양육한 그의 어머니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훌륭한 신앙 인물들의 배경에는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자 소망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고 자녀들은 주로 학교나 학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머물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입시경쟁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큰 도전을 준다.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교회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암송, 성경필사, 공과 특별활동과 같은 것을 가정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이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런 활동을 매주 체크하고 도와주려면 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양육을 전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부담감이 적지 않다. 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의 부모들에게는 다소 가혹하게 들리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개개의 가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정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적절한 길을 모색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애굽기 12-13장에 나타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활동을 통한 가정신앙교육은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매우 매력적인 신앙전수 방법이며 이런 유대인식의 교육, 특히 대화와 토론의 하브루타(havruta) 교육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여러 방면의 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전통을 현대의 유대인들이 현대의 정황에 맞게 상황화 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유대식 가정신앙교육의 요소를 한국 개신교의 정황에 맞는 가정신앙교육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를 들어,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과 기독교 신앙적인 부분을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다.

저자는 미국교회의 가정목회의 실례로 브랜트우드 교회의 가정신앙교육의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Tennessee)에 있는 침례교회의 상황에서 사용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웃과 교회가 비교적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일이면 차를 타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 보여주듯이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강화되어 있는 미국 남동부 지역의 특성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 교회학교에는 부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이에 가정목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례 연구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Y교회는 저자가 세대통합에 대한 교회학교 교육을 인식한 것과 같이 이미 온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음세대 교회교육에 있어서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이다. 주일 낮 예배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예배 형식으로 디자인 되어있으며 교육목사에게도 설교권이 주어진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아이들은 어른예배에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신앙교육과 함께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담임목사는 이를 위해서 교회학교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며 기독교교육전문가를 교육담당자로 세워 함께 사역하고 있다. 또한, 서울 중랑구에 있는 D교회도 정기적인 온 세대 통합예배 및 교육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세대통합 교회교육을 점진적으로 시도해 가고 있다. 따라서, 가정목회를 이미 실천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실례 연구가 이 논문에 포함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신앙교육 모델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연구를 위한 몇 가지 부분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과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다루는 부분에서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파악은 잘 되어있는 것과 같이 미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파악도 포함되어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목회로의 전환의 실례로 소개한 브렌트우드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었는지,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진다면 좋겠다. 물론 가정사역을 통한 다음세대 신앙교육이 잘 되었다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구자에게는 도전이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숫자로 교회학교 신앙교육의 성공 여부를 논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례연구(case study)나 이야기 연구(narrative study)와 같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통해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문진형 박사의 주장과 같이 올바른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목회자를 비롯한 일반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 특히 담임목회자의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중점을 두는 목회철학이 중요하며, 이런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신학교의 협력이 필요하겠다. 부디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교회학교와 가정사역을 통한 다음세대 신앙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음세대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해 본다.

## 제 3 발표

#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십자가 프락시스의 설교: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을 중심으로

채 정 명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와 설교)

### I. 들어가는 말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매우 급격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20년 초반, 전 세계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몰아넣었던 COVID-19 팬데믹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인간의 자리를 대신해가는 Chat GPT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아래 급격한 시대상황의 변화를 맞이하는 오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성도들과 그들에게 바른 꼴을 먹여야 할 목회자들에게 말씀은 풍성하게 들으나 변화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의 길을 좇아가야 할 제자가 아닌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 세상의 이면에 감추어진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삶에서의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프락시스(Praxis)는 개인에서 공동체, 교회와 사회적 상황, 문화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비평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추구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설교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때에,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으로의 회복과 변화를 그 목표로 삼는 프락시스는 설교 사역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적 영향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

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설교는 왜곡되고 회중들의 삶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없게 된다.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의 실존적 경험을 추구함에 있어서 십자가는 그 중심이 되며 바른 성도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기준이 된다. 십자가의 프락시스 개념을 설교에 적실하게 접목시킨다면 그리스도의 행위, 특별히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성찰함은 물론, 복음 중심의 올바른 설교사역을 회복할 수 있는 신학적 방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아래 등장한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계가 급격한 시각변동을 경험하고 있고, Chat GTP가 설교자의 자리를 대신하며 신앙의 삶과 목회현장의 패러다임이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해가는 혼돈의 이 시대에 어떻게 변함없이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교회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본 논고의 목적은 그 대안을 프락시스의 회복에 두고 설교의 신학적 본질의 회복과 그 방향성을 모색해 가고자 하는데 있다.

## II. 프락시스와 비평적 성찰

### 1. 프락시스에 대한 이해

본래 프락시스는 헬라어 동사 ‘프라쏘’(πρασσω)로부터 왔는데, 이 용어는 ‘내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프락시스란 “사회 정치적 세계 안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바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sup>1)</sup> 그는 세 가지의 삶의 방식으로써 사유적 삶(theoria), 실천적 삶(praxis), 생산적 삶(poiesis)을 이야기했다. 그가 이해한 프락시스의 기본적 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참여와 합리적인 성찰에 의해 형성된 의도적이며 성찰적인 인간의 활동이었다. 이후에 철학 안에서 개념들 사이의 분리가 이루어져왔고<sup>2)</sup> 객관주의와 전통적 해석학의 영향 아래 일방적이며 논증적, 명제적 전달 위주로 이루어졌던 인식론에서 이 개념은 실천과 분리된 이론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은 이러한 인식론의 이분화를 극복하고 실천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프락시스(Praxis)의 개념을 제시한다.<sup>3)</sup> 그룸에 의

1) 안성진,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교육 프락시스의 관계성-Michel Foucault와 Christophaxis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 논총』 15(2007), 224.

2) *Ibid.*, 224.

3)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The Way of Shared Praxis*,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36.



하면 프락시스는 사회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삶의 방식이며, 단순한 삶의 실천을 넘어 성찰의 의미를 포함해야만 한다. 즉 프락시스는 현재 참여자들의 경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로서, 동시에 세상 안에서의 그들의 삶에 관한 깨달음과 반성이 함께 일어나는 성찰적 행위이다.

그들은 이 프락시스의 개념을 통해 바람직한 기독교교육의 방법으로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일들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자발적으로 표현해 내도록 도울 것을 제안하였다.<sup>4)</sup> ‘오늘-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구현해 나아가야 할 설교 역시 회중으로 하여금 삶과 동떨어지고 경직된 명제로서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이끌고 그에 대한 의식을 스스로 표현하며 복음을 통한 반성을 이끌고 그것을 수용하거나, 혹 저항하게 만든다. 프락시스의 주요 요소로서 비평적 성찰은 회중을 오늘날 우리의 실존과 삶의 현실을 해석해가는 책임적 주체로 세우며, 실천적 삶의 방식을 이끌어 내고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삶과 삶의 분리와 왜곡, 메시지를 삶의 적용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오늘날 강단에서의 문제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sup>5)</sup>

그들은 신앙을 형성하는 믿음의 프락시스를 이야기하며, 이는 문화의 해석과 변혁을 추구한다.<sup>6)</sup> 그 목표는 삶과 믿음을 “살아 있는 신앙”으로 통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이며, 그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다.<sup>7)</sup>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믿음의 형성은 프락시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며, “프락시스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프락시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8)</sup>

## 2. 비평적 성찰에 대한 이해

프락시스를 해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비판적인 성찰은 필수적이다. 이규호에 의하면, 성찰과 해방은 우리의 대화를 억압하는 정치적 지배와 갈등, 사회적 부조리로부터

---

4) Thomas H. Groome, *Educating for Life: A Spiritual Vision for Every Teacher and Parent* (Allen, Tx.: T. More, c1998), 161-162.

5) 채정명, “교회의 책임성 회복을 위한 설교의 프락시스 연구,” 『설교한국』 16(2022), 102-03.

6) Jose Ramon Irizarry-Mercado, “Praxis E Identidad: Discourses and Practices of Puerto Rican Religious Education in the Works of Domingo Marrero and Angel M. Mergal, 1935-1965,” (Ph.D., Northwestern University, 2001), 180.

7) Thomas H. Groome, “The Official “Mind of the Church” on Catechesis: Where Are We Now and What Are Our Horizons?,”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76(2015), 206.

8) *Ibid.*, 206.

터 벗어나게 하며, 비판과 자신의 선입견과 좁은 관점을 초월하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앞의 자리로 인도하는 개방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sup>9)</sup> 비평적 성찰은 우리로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들을 고려하게 한다. 우리는 어떤 진술의 진리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문법적 비판과 그 학문적 공동체에 포함되는 이해지평과 그 진술들을 바탕으로 한 선험적 지평의 분석을 넘어 사회전체의 구조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결국 진술의 진리 여부를 가능하기 위해 표면적, 논리적 차원을 넘어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의미 및 깊은 자아성찰과 비판이다.<sup>10)</sup>

그럼에 의하면 비평적 성찰이란 주체와 객체로서의 존재가 시공간 안에서 전적으로 참여함으로 그들의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판단과 기억, 상상과 같은 정신 활동을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비평적 성찰의 주요 목적은 공동체의 참여자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프락시스와 역사적 실재를 평가 및 해석하도록 하는 것<sup>11)</sup>이다. 또한 기독교의 비전, 상상을 강조하는 비평적 성찰은 새로운 프락시스에 대해 역사적, 윤리적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차원을 지니며,<sup>12)</sup> 현재 행위에 관한 비평적 성찰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추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종말론적 차원을 갖는다.

비평적 성찰에 있어서 적합하고 정확한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와 대화로서 현재 프락시스에 관한 해석을 시험하고 바꾸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해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삶과 현재의 사회적, 역사적 실재를 보게 하고 일치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다.<sup>13)</sup>

비평적 성찰은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의 원천이 되며 참여자들의 행동에 관한 반성으로서<sup>14)</sup> 프락시스에 의한 설교의 내용이 된다. 설교의 해석은 비평적 성찰을 활용한 삶의 프락시스와 복음의 프락시스와의 변증법적 대화를 통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성찰된 삶을 통하여 복음적 경험과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설교에서 비평적 성찰의 지위는 청중을 설교의 참여자요, 반성의 주체로서 능동적인 위치에 서게 하며, 각자가 현실의 프락시스를 반성하고 분별하는 비평과 대화를 통

9) 이규호, 『앞과 삶: 解釋學的 知識論』 (서울: 좋은날, 2001), 205-07.

10) *Ibid.*, 204-05.

11) 우리의 현재 프락시스를 폭로하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편견과 이데올로기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비평적 성찰은 잊혀진 현실의 프락시스에 관하여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인 원천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 근거와 관심 및 추정들을 발견하도록 도우며, 현실의 프락시스의 결과물로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188.

12) *Ibid.*, 188-90.

13) *Ibid.*, 191.

14) 그룹은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에 의해 알려지는 비평적 대화가 프락시스에 의한 기독교 교육의 내용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Thomas H. Groom, "The Critical Principle in Christian Education and The Task of Prophecy," *Religious education* 72(1977), 268.

하여 자신의 존재적 삶을 해석하고 사회, 역사적 상황까지 분석적, 창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하는 것에 있다.

### 3. 비평적 성찰과 현실의 프락시스: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한국교회

시대를 변혁시켜야 하는 설교사역이 오히려 복음에 반목하고 저항하는 시대의 흐름에 잠식되어 버리게 될 때에 강단 위에 설교의 위기는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사회, 문화, 지적인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실천해야 할 설교 사역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sup>15)</sup>을 위해 우리에게 실천적, 변혁적, 책임적 임무를 제시하는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의 원천으로서 비평적 성찰을 활용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현 사회의 예배와 설교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중요한 요소인 빅데이터의 딥러닝 방식은 일반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설과 시까지도 작성하며 인간과 경합하여 승리하기도 한다.<sup>16)</sup> 2020년 초반,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COVID-19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큰 변혁을 가져다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유튜브, 인터넷, SNS와 같은 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차원에서의 목회적 프로그램의 증가는 설교실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주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미디어 중심의 변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소위 뉴노멀(New-Normal)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뉴노멀(new-normal)이라는 용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이르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경제의 질서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IT 버블이 붕괴된 2003년 이후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e)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 용어로 알려졌던 뉴노멀은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질서를 지칭하는 일상어로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7)</sup>

이 용어는 최근에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고 일반화되어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기준 혹은 표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창훈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나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또는 새로운 상황”을 의미한다.<sup>18)</sup> 모든 방역과 생활수칙들과 함께 비대면/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비대면 설교를

15) 김운용,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설교,” 『장신논단』 17(2001), 359.

16) 이처럼 인공지능(AI)은 인간만이 사고하고 작성할 수 있었던 양식적인 디자인과 문학까지도 기능적으로 그 우위를 점유해 가고 있다.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2018), 156-57. 158.

17) 유재원,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설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과 실천』 78(2022), 84.

듣기 위하여 활용하는 여러 미디어 사용 방법과 매뉴얼을 비롯한 줌, 카카오톡의 단톡방, 페이스톡, 구글 미팅 사용 규칙 등이 대표적인 뉴노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심지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배와 설교의 기능과 형태가 바뀌고 있다.

유재원은 비대면이라는 특성을 가진 뉴노멀 시대 바람직하게 시행되어야 할 설교의 실천적 차원에서 올바른 설교자로서의 사명감,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의 교육과 인식,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코로나 세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제안<sup>20)</sup>한다. 정인교는 Post-COVID 시대의 설교적 대안으로 첫째, 설교자 개인의 설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상생을 위한 협력으로서 교단 차원의 연대적(連帶的) 필요성을 이야기하며<sup>21)</sup>, 둘째, 설교내용의 이원화로서 먼저 설교가 세상을 향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앙이라는 전제와 이야기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서 누구나 들을만한 '국민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설교내용의 일반화를 제안하고, 아울러 성도의 양육과 제자화라는 내부적 노력을 강조하는 설교내용의 특화를 제시한다.<sup>22)</sup> 마지막으로 귀납적 이야기(스토리 텔링)설교, 찬송, 영상, 판소리, 판토마임, 대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특수설교를 통해 설교지평을 확대하고 설교전달체계를 전문화할 것을 제안한다.<sup>23)</sup>

이처럼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를 둘러싼 현상들과 설교사역에 관하여 신학적 본질을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수용하거나 혹은 저항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과 숙고함이 우리의 설교 사역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문화적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 심화되며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삶과 삶의 분리를 가속화시키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후에 그것을 분별하고 회복하는 프락시스의 설교를 위한 신학적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A. 제자도 상실

먼저 급격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

18) 김창훈,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신학지남」 제88권(2021), 313.

19) 유재원,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설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과 실천」 78(2022), 84-85.

20) *Ibid.*, 92-97.

21) 정인교, “POST-COVID 시대의 설교,” 「신학과 실천」 71(2020), 154-58.

22) *Ibid.*, 158-63.

23) *Ibid.*, 163-70.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COVID-19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예배가 주는 수많은 순기능들이 드러났지만, 그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게 된 것들은 무엇일까? 미디어 사역의 발달과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목회적 활동의 편의성들이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회중이 감당해야 할 정성과 수고는 그 가운데 희석되었다. 멀리서 교회에 오지 않아도 편안하게 말씀은 들을 수 있으나 봉사와 섬김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편하다는 이유로 시간과 물질, 타자를 위한 헌신이 필요한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교회 안에 더욱 편만하게 잠식되어 버린 편의주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뉴노멀 시대 이전에도 존재해 있었던 편의주의는 어느 사이엔가 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현실의 프락시스 속에서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추구해왔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양적이고 외적인 부흥을 중시해왔다는 것이다. 외면의 화려함과 양적성장의 추구는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좇아야 할 제자로서의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설교가 바른 신학적 본질을 추구할 때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왜곡된 신학과 해석은 그릇되고 변질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설교가 바르게 해석되지 아니한 문자주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의 이익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 될 위험성이 있다. 한국교회의 설교는 그동안 왜곡되고 편향된 신학적 영향 아래에서 계시성과 혼용된 변영신학<sup>24)</sup>, 맘모니즘, 기복사상, 개인주의에 치우쳐져 있음을 비판 받고 있는 현실이다.<sup>25)</sup> 모두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뉴노멀 시대에 설교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본질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는 편의주의와 상충된다.

## B. 존재 상실

기술이 핵심이 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소위 ‘기호자본주의(semiocapitalism)’로 변모하게 될 것을 전망한다.<sup>26)</sup> 기호자본주의란 “자본 획득과 축적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기호의 교환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시대”를 의미한다.<sup>27)</sup> 비신체적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만남들을 통해 사회 및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24) 김창훈은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기독교의 왜곡된 이해를 조장한 데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로 변영신학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창훈,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60.

25) 김광석, “다상황적 현실, 텍스트해석과 설교의 계시성에 관한 연구-텍스트, 공동체, 삶의 유기체적 순환-,” 「신학과 실천」 56(2017), 116.

26) 정인교, “POST-COVID 시대의 설교,” 「신학과 실천」 71(2020), 159.

27) 이은경, “기호자본주의 시대 마음의 오작동과 몸을 통한 치유가능성 - 성육신적 신학과 신앙감수성 -, ” 「신학과 실천」 79(2022), 699.

초연결 시대 안에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와 소외, 타자를 향한 비공감성과 무차별적인 혐오와 폭력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기호자본주의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은 소비주의이다. 인간의 가치를 상품이 대체하게 되었고 우리의 자아와 인간성을 빼앗기고 말았다.<sup>29)</sup> 현대의 소비사회는 오늘의 목회현장을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불만족과 쾌락을 추구하게 하였고,<sup>30)</sup>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상승배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존 카바나(John F. Kavanaugh)는 우리의 국가적, 개인적 정체성이 “소비주의적인 생활 방식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소비주의적 삶이 삶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삶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버렸다”고 진단한다.<sup>31)</sup> 또한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고향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불안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포로기의 은유’로 묘사하였다.<sup>32)</sup> 그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소비주의의 이상승배로 채워진 현대 문명의 공허감으로 바라보며 특히 신앙의 상황을 상실감, 뿌리없음, 절망적 권세라는 실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재 경험, 도덕적인 부조화(moral incongruity), 자기 몰입과 같은 부정적인 쟁점들을 제시한다.<sup>33)</sup>

이 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sup>34)</sup>이다. 그 중심적 특징은 해체주의와 다원주의, 상대주의이다. 중심의 상실과 권위의 부정을 가져오는 해체주의에서는 문화적 파편화와 다중화, 지역화(localization)<sup>35)</sup> 현상이 나타남으로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것들이 무너져 가게 된다. 여기서 개인의 자아가 끊임없이 해체 및 재구성됨으로 정체성의 혼돈과 상실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일회적인 것이 되고 해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sup>36)</sup> 이러한 가치관 아래에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정체성과 성경적 인간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다.

28) *Ibid.*, 698-702.

29) 존 카바나/ 박세혁 역,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nterVarsity Press, 2006), 92-98.

30)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65.

31) 존 카바나/ 박세혁 역,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87

32) 월터 브루그만/ 이승진 역, 『탈교회 시대의 설교』 (서울: CLC, 2018), 25.

33) Walter Brueggemann, *Text under Negotiation: The Bible and Postmodern Imagination*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1993), 26-49.

34) 김창훈은 뉴노멀의 시대를 이야기하며, 오늘날의 변화된 시대와 상황을 잘 정리해 주는 대표성의 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또는 워드) 코로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 김창훈,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13.

35) 김운용,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설교,” 347.

36) Richard Middleton,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 To Be: Biblical Faith on a Postmodern Age*, 김기현, 신광은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파주: 살림, 2007), 110-15.

### C. 타자성 상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정체성을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는 책임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서<sup>37)</sup> 공동체적 차원으로 이해하였으며, 타자와의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 ‘우리’라는 개념이 형성된다고 보았다.<sup>38)</sup>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 교회 안에 등장한 신조어인 ‘신유목 교인(nomad Christian)’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과 헌신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향한 애착과 관심조차도 쉽게 포기해 버린다.<sup>39)</sup> 이러한 개인주의는 개별적인 자아정체성과 인격의 해체와 함께 공동체마저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과 비대면에 익숙해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최윤식은 “교회 안에도 각자의 방식대로 조용히 신앙 생활을 영위하려는 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층 간의 정서적, 심리적 간격이 넓어지고 있으며 신뢰결핍으로 인한 개인주의 신앙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40)</sup> 타자보다 개인의 만족과 편의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시대, 개인주의는 교회의 본질적 특성인 함께함의 기쁨과 조화를 무너뜨리고 있다.

### D. 공공성 상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공적 영역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복음의 사사화 현상으로 인하여 공적 영역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주의적 차원에 머무르게 됨으로 공적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도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위기이다. 참된 신앙의 하나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sup>41)</sup> 공교회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비전에 참여함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프락시스를 이 시대 가운데 추구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사회, 정치, 문화 안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실현해 나가야만 한다.<sup>42)</sup> 따라서 교회가 사람들의 현실과의 연결성을 추

37) Thomas H. Groome, *Educating for Life*, 90-91.

38) Thomas H. Groome, “Total Catechetic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2004), 14.

39) 최윤식,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76-77.

40) *Ibid.*, 173-75.

41) 김현수, “오늘 우리를 위한 디트리히 본회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막스 스택하우스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신학사상』 157(2012), 14.

42) Thomas H. Groome, “The Critical Principle in Christian Education and The

구하는 공적인 영역을 등한히 한다면, 역사적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만 하는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프락시스로서의 설교 가운데 비평적 성찰은 진리의 복음의 기준 위에서 바른 성경적, 신학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가능자가 된다. 급격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에 본질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프락시스를 추구해야 할 설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본질을 위협하는 네가지 상실된 요소에 저항하며, 회복된 대안공동체를 형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비평적 성찰의 원천이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서의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이다.

### III.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 그리고 십자가의 프락시스

#### 1. 프락시스와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

설교사역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활력 있는 경험에 관한 비평적 성찰은 반드시 그들 자신의 이야기와 비전과 함께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과 결합되어야 한다. 그룹에 의하면, 미래의 실천을 추구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중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앎과 기독교의 이야기와 비전 및 이야기와의 경험적, 성찰적 만남으로부터 형성되는 앎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적이며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을 향하도록 돕게 된다.<sup>43)</sup>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과 삶, 나아가 이후에 전개된 기독교의 전통을 상징화하는 은유가 된다. 나의 경험과 기독교 이야기 및 비전과의 만남의 때가 곧 제자도를 향하여 변화되는 순간이며 살아있는 신앙의 프락시스가 형성되는 순간이다.

#### 2. 기독교 이야기: 역사와 현실로서의 십자가

이야기와 비전의 상징은 역사 속에 뿌리내려온 신앙의 전통을 성찰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이며 역사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이야기는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을 독자에게 연관시키는 비범한 힘이며,<sup>44)</sup> 이야기체의 기능은 독

---

Task of Prophecy,” 271.

43) 이를 위해 그룹은 경험에 대한 비평적 성찰의 차원을 심화시키고자 성경의 이야기와 비전과의 변증법적 상관관계 속에서 현재의 경험을 유지하려는 의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공유의 프락시스(Praxis of Sharing) 모델을 제시한다. Thomas H. Groome, *Educating for Life*, 223-24.

44) Leland Ryken, *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Zondervan Academic,



자가 어떠한 목소리를 듣게 하고 특정한 행동에 참여하게 하고 어떤 이야기의 진행에 동참하도록 돕는다<sup>45)</sup>는 의미에서 실천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의 실천성을 참여적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설교학에서는 이야기를 청중의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유비로 사용하기도 한다.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승리적 선포로써 실패하고 깨어지고, 의심과 두려움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비추고 있으며, 설교가 이것을 이야기 할 때 청중은 그들의 삶에서 복음을 기대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삶은 그 구성(Plot)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유사한 서사적 구성(Narrative Plot)을 지니고 있으며,<sup>46)</sup> 성경의 이야기에서 드러난 복음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청중의 삶에는 실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실천성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체 언어의 패턴은 이야기와 비전이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한 실천적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또한 이야기를 그것의 역사적 차원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신앙 형성에 관한 은유로서 그 역사적 기원과 실현에 관한 신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막스 터너(Max Turner)는 성경의 본문을 역사적 의미에서 분리하면 본문 자체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고 보고 성경에 기록된 고백적 진술 역시 역사적으로 정의되며,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내러티브의 역사성에 토대를 둔다. 그는 내러티브와 같은 문학적 접근은 역사적 차원과 함께 역사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7)</sup>

인간의 말을 통해서 실행되는 설교는 언어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 공간 안에서 계시적 인식의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설교의 계시적 특성은 숨어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으로서 역사적 현장인 십자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결국, 설교는 하나님 자신의 역사성을 증명한 자리로서 십자가의 계시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으로서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현존하는 사건이다.<sup>48)</sup> 고난의 실존을 살아내는 역사적 삶 속에서 인간은 계시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케리그마(Kerygma)로서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1984), 34.

45) Norman Perrin,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4), 165.

46) 최진봉, "본문과 삶 간의 유비적 읽기로서의 새로운 설교학에 대한 이해," 「장신논단」 41(2017), 279-80.

47) Joel B. Green, Max Turner, *Between Two Horizons: Spanning New Testament Studies and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0), 1-22.

48) 김광석, "다상황적 현실, 텍스트해석과 설교의 계시성에 관한 연구-텍스트, 공동체, 삶의 유기체적 순환-", 「신학과 실천」 56(2017), 124-26.

시드니 그레이다누스<sup>49)</sup>의 총체적 성경해석 중, 역사적 해석의 차원을 접목하고자 한다. 그가 제안하였던 역사적 해석은 성경본문이 쓰여진 시기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문학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기록의 메시지를 본래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sup>50)</sup>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설교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설교의 중심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 선포이다. 십자가는 이러한 케리그마 선포의 중심 요소였으며, 초대교회 설교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는 개념이었다.<sup>51)</sup> 케리그마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 사건에 대한 선포이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 안에서 성취하신 그 사실에 달려 있다”고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역사적인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다.<sup>52)</sup> 총체적인 역사적 해석은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은 물론, 그것이 본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 그레이다누스에 의하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관한 성경의 비전은 곧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며 성경을 포괄하는 주제는 ‘창조-타락-구원’<sup>53)</sup>으로서,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 흐름 안에서 일관성 있는 기독교 이야기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십자가는 구원 사건의 놀라운 전환점이고 구속의 정점이 되는 이야기로 드러난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행동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의 존재와 연관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에 참여하게 될지를 알려준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복음의 이야기(케리그마)는 오늘의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실천적 지혜를 부여하는 프락시스가 된다. 설교의 목적은 이러한 회중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프락시스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설교에서 여전히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와 연관되게 하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동참하게 하며, 행동하게 하는 강력한 실천적 힘이 된다. 십자가의 이야기는 여전히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설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십자가의 프락시스는 제자도, 자기존재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현실의 프락시스를 점검하는 비판적 가늠자가 된다. 여기에 나타난 십

49) 성경신학자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성경과 신학을 연결시키는 건설적인 신학의 권리를 부정하는 자들의 도전에 대항하면서 튼튼한 토대 위에 그 신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브래버드 차일즈의 성경신학운동을 설교학과 밀접하게 연관시킴으로 총체적인 성경해석 위에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의 균형있는 본문중심의 설교를 추구하게 된다.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93-95.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76-77.

50) Graham H. Stanton,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Today.” *Ex Auditu* 1(1985), 64.

51) Richard Lisher, *A Theology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1), 73.

52)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92-93.

53) *Ibid.*, 94-98.

자가는 역사적이며 실천적 은유로서,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기독교의 비전으로 나아간다.

### 3. 기독교 비전: 언약과 책임으로서의 십자가

기독교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을 형성하기 위한 언약과 책임에 대한 은유로서 이는 기독교 이야기로부터 나타났으며, 사람들의 삶을 미래를 향하여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이며 새로운 믿음의 비전을 향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도록 요청받는다.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될 때까지 언제나 신앙 안에 있는 현재 프락시스의 지평선 아래로 부름을 받는다.<sup>54)</sup> 곧 기독교의 비전은 구원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인 교회의 이야기로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며,<sup>55)</sup> 이는 언약의 성취로 나아간다. 여기서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적 언약의 성취를 위한 중심적인 은유이다.

또한 십자가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형성해나가는 실천의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프락시스의 차원이 된다. 기독교 비전으로서의 십자가는 구속사적인 흐름 안에서 언약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 신앙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책임적이다.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총체적 성경해석의 차원에서 또한 신학적 해석을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 중심적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루어진 케리그마에 관심을 집중한다.<sup>56)</sup> 이 케리그마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한 선포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연관된다. 그레이다누스가 강조하는 성경의 중심적 주제는 오직 한분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오직 하나뿐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다.<sup>57)</sup> 설교의 바탕이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레이다누스의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언약과 구원과 함께 책임적 차원에서 순종에 대한 요구를 동반한다.<sup>58)</sup>

이러한 비전과 관련하여 존 스토틀트는 성도의 책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바꾸어

---

54)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217.

55) 성경의 본문은 말씀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그 본문을 해석하게 된다. Brevard S. Childs,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as Scripture*, (Philadelphia: Fortress, 1979), 74

56)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102-03.

57) *Ibid.*, 166-83.

58) *Ibid.*, 118-19.

놓는데,<sup>59)</sup> 십자가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그와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sup>60)</sup>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 언약 안에 변함없이 거하는 백성들은 앞으로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시 온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궁극적 비전이 된다. 설교는 언제나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기대하게 하여야 하며, 그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천성과 책임성을 지닌 비전은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고 확신함으로 신앙을 형성하는 프락시스로서의 활동으로서 종말론적 차원을 지닌다.

#### 4. 설교가 담아내야 할 십자가의 프락시스

결국 설교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정립함으로<sup>61)</sup> 변함없이 하나님 통치의 이야기를 역사적 현실 가운데 써내려가며 변함없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의 비전을 새기고 제자됨을 이루어나가는 프락시스적 행위가 된다. 오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제자도로서의 프락시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관하여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으로서의 십자가는 대안을 제시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프락시스로서 역사적 현실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고, 믿음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현실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갈등과 실체를 분별하는 비평적 성찰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편협성과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고 현실의 프락시스를 개선 및 수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 실천의 방법을 발견하게 한다.

### IV. 십자가, 자기이해와 자기 희생의 프락시스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이끄는 언약적, 책임적 삶은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라고 요청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59) John R.W. Stott, *The Cross of Christ*, (Downers Grove, Ill. : InterVarsity Press, 1986), 274.

60) *Ibid.*, 277.

61) 찰스 캠벨/ 김운용 역,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설교의 윤리』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4), 182-83.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sup>62</sup>).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이며 대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대속적**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함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사람이며, **대표자**란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함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의 행동에 포함시키는 사람이다.<sup>63</sup>)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대표자와 대속자의 개념에 이미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역할과 책임성 및 실천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실천으로 이끄는 신학적 은유로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 삶의 프락시스를 진단할 수 있는 비평적 성찰로 이끈다. 이러한 요청은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부인과 자기 긍정<sup>64</sup>)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희생과 정의라는 책임적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설교에 있어서 프락시스를 고려한다는 것은 먼저 어떤 하나의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경험과 현실과의 대화와 비판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사회 가운데 편견이나 왜곡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며, 우리의 성경과 신학적 전통이 일관성 있게 강조해온 요소들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참여적이고 현실적인 설교의 메시지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프락시스의 요소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앞서 살펴본 현실의 프락시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숙고해 보고자 한다.

## 1. 자기 존재성 회복을 위한 설교: 상상과 이야기를 통한 정체성 회복하기

### A. 자기 부인 (Self-denial)

제자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니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이다. 존 스토틀에 의하면 자기십자가는 자아에 대한 죽음의 상징이다.<sup>65</sup>)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며, 예수의 부활은 또한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가지의 차원으로 성찰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법적인 차원의 것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으로 회심 및 세례 시에만 발생한다. 부활은 칭의를 얻은 죄인들을 새로운 자유의 삶으로 이끈다. 둘째, 자아에 대한 죽음으로 이는 도덕적 차

6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63) John R.W. Stott, *The Cross of Christ*, 276.

64) *Ibid.*, 277-78.

65) *Ibid.*, 278-79.

원의 것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자기의 옛 성품과 악한 소욕을 죽임으로 날마다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셋째, 우리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고후 4:9-10)으로서 무사안일에 대한 죽음이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터 오는 내적인 활력이며 갱신이요, 우리 약함 안에서 완전해지는 예수님의 능력이다.<sup>66)</sup>

## B. 자기 긍정(Self-affirmation)<sup>67)</sup>

첫째, 예수님은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다(마 6:26; 12:12).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극치라는 사실에 있다. 둘째,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태도로서 아무도 경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 나병환자들, 창녀, 버림받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셨다. 셋째, 우리는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과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울 만큼 가치가 있다.<sup>68)</sup> 성도는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곧 타자를 위해 존재하시는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는 사람<sup>69)</sup>이다. 자기긍정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었다. 해체주의와 소비주의의 현상 속에서 상실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실존적 정체성에 관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자기 긍정과 자기 긍정의 정체성은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서 나타난 이야기와 비전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예수의 내러티브를 설교함에 있어서 상상과 이미지의 요소들은 좋은 방편이 된다. 성경의 내러티브가 갖는 특징은 경험적인 구체성이다. 그것은 일생생활의 장면에서 나오는 감각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그것을 듣는 청중들은 직접 그 이야기에 참여하며 주제와 신학을 육화시키는데 이것은 실재가 추구하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sup>70)</sup>이다. 우리를 가치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

66) *Ibid.*, 280-81.

67)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창조의 결과(하나님의 형상)이며, 부분적으로는 타락의 결과(손상된 형상)이다.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며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는 자아는 타락한 자아, 곧 우리 안에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것이다. 우리가 긍정해야 할 자아는 창조된 자아, 곧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참된 자기 부인은 자멸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길이다. *Ibid.*, 282.

68) *Ibid.*, 281-82.

69)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서울: 복있는 사람, 2018), 367-68.

70) Leland Ryken, *How to Read the Bible as Literature*, (Zondervan Academic,

씀을 복음서 내러티브를 통해 들을 때에, 우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나약하고 왜곡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된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상을 통하여 인식되고 실제로 경험된다.

## 2. 제자도 회복을 위한 설교: 삶의 설교자가 되라

설교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으로서 회중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이야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의 선포이다.<sup>71)</sup>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설교는 회중으로 하여금 올바른 제자도를 걷게 한다.

존 스토틀에게 있어서 자기부인과 자기 긍정은 모두 자기 희생의 수단이다. 자기 이해는 결국 희생 안에서 자기를 주는 것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가 좇아야 할 제자도로서 결국 십자가의 공동체는 자기를 주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과 희생, 권력과 섬김, 편안과 고난이라는 양자 사이의 선택으로 이끌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은 이기적 욕심을 폭로한다. 안전과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과 양립할 수 없으며, 존 스토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 언제나 어느 정도의 불안정과 위험, 거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군중의 길과 십자가의 길 사이에서 선택을 직면하는 것<sup>72)</sup>, 이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오늘-여기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이며 설교의 프락시스는 오늘 회중에게 그러한 선택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자도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날마다 죄와의 싸움 그리고 이웃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자기를 주는 죄용서의 친교로 나아가게 한다. 제자도를 추구하는 설교는 오늘 현실의 프락시스 안에서 교회로 하여금 야심보다 희생을, 권세보다 섬김을, 편안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생명의 수여를 추구하게 한다. 편의주의와 소비주의의 문화적 영향 아래에서 고난과 섬김의 정신을 잃어가는 세대에게 제자도는 설교사역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데이(David Day)는 ‘사람이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는 설교자의 삶과 말이 일치하며, 그의 기도가 설교에 스며들고, 우리가 진리를 진실로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람들의 죄책감이나 두려움,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자유와 무한한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분투하는 것이

---

1984), 19-20.

71) 김운용, 『현대설교 코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48.

72) John R.W. Stott, *The Cross of Christ*, 285-88.

라<sup>73)</sup>이라 보았다. 제자도의 메시지가 육화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도를 선포하는 설교자 자신부터, 야심과 권세와 편안보다 희생과 섬김과 고난을 솔선수범하여 예수의 길을 기쁨과 순종으로 좇아가는 삶의 설교자가 되어야 하겠다.

### 3. 타자성 회복을 위한 설교: 사랑으로 형성된 대면 공동체를 강조하라

존 스토틀트는 그리스도의 육화를 이야기 하며 그 의미를 설명한다. 육화란 타인의 세계로, 곧 그들의 사고 세계 및 소외와 고통과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육화는 십자가로 이끈다.<sup>74)</sup> 나를 따르라는 십자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회퍼 역시 제자도 안에 서 있는 성도는 세상을 위한 대리자로서 섬기며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sup>75)</sup> 보았다. 그는 한마디로 교회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정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을 새롭게 인식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한다.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고 타자를 위한 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한다.<sup>76)</sup>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이중적 동기를 얻게 되었다.<sup>77)</sup> 결국, 신앙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타자를 위한 관계의 가능성을 형성하는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 타자와 연결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사랑을 추구함이 우리의 인식과 존재의 방식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보았던 파커 팔머(Parker J. Palmer)는 아래와 같이 진리의 공동체를 주장한다.

첫째, 공동체는 연결됨의 역량이 펼쳐지는 곳이다. 즉, 공동체는 역설에 대한 이해의 폭과 아울러 역설의 깊음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타인과 연결됨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연결됨이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의식이며, 그것은 분열되지 않는 자아의 관계로 형성된다. 셋째, 영적 공동체는 세상과 개인의 연결 및 세상의 관여(invovement)에 힘을 준다.<sup>78)</sup>

73) 데이비드 데이/ 최승근 역, 『성육신적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CLC, 2018), 33.

74) John R.W. Stott, *The Cross of Christ*, 291.

75) 존 갓시/ 유석성, 김성복 역,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87-90.

76) 본회퍼가 1932년 6월 12일에 베를린에서 “타인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과 골로새서 3장 1~4절 본문으로 행한 설교이다. 디트리히 본회퍼/ 정현숙 역, 『디트리히 본회퍼: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97.

77) John R.W. Stott, *The Cross of Christ*, 292.



팔머는 모순 가득한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양극화된 세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기 위하여 영적인 진리공동체를 창안해내었다.<sup>79)</sup> 십자가의 프락시스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타자로의 연결됨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행동하는 신앙의 본질적 회복을 위하여 설교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갈 것에 대해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여야 한다. 온라인, 비대면 활동이 주는 유익이 있으며 그것이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여도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효율성의 추구보다는 희생과 헌신에 두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편의성으로 인한 비대면의 모임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보다는 대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재활성화하는 일과, 필요에 따라 비대면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목회적 활동과의 균형은 필요하겠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곳,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찾아가셨고 그들을 섬기셨다. 그 현장에서 놀라운 회복과 감격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4.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설교: 공적 영향력을 위한 미디어 활용하기

십자가의 공동체는 사랑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의는 다양한 영역 곧 국제적, 정치적, 법적, 인종적, 경제적, 성적, 교육적, 종교적 차원에 걸쳐 작동된다. 사랑과 정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연합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인간으로서 그들이 누릴 기본권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이는 또한 정의에서 나온 관심이다. 십자가의 메시지에 참으로 몰두하는 십자가 공동체는 항상 정의와 사랑의 요구를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sup>80)</sup> 예언자들의 역할은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sup>81)</sup> 이는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뜻에 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역시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레 19:22) 그룹은 이러한 거룩하심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방편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78) 심영환, “파커 파머(Parker Palmer) 진리공동체이론의 메타프락시스적 성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2019), 45-46.

79) 김성실. “파커 팔머의 진리공동체의 교육적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37(2013). 204-207.

80) John R.W. Stott, *The Cross of Christ*, 292-93.

81) Thomas H. Groom, “The Critical Principle in Christian Education and The Task of Prophecy,” 270.

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자신, 타자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sup>82)</sup>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타인과의 사랑스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온전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반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살아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정의를 요구하는 사랑으로 이웃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와 사랑을 향한 영성의 불가분성을 이야기한다.<sup>83)</sup>

설교의 메시지는 복음의 사사회와 개인주의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교육과 같은 공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이며 책임적 차원의 특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SNS, 미디어, 인터넷, 영상을 활용한 목회프로그램, 온라인과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사회, 정치, 문화 공적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다.<sup>84)</sup> 어느 한 진영에 치우치는 편협되고 왜곡된 신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성도 자신과 타자 및 사회와 피조세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sup>85)</sup>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 V. 결론

설교가 담아내야 할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으로서의 십자가는 첫째, 오늘의 영적, 사회적, 문화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현실의 이야기를 향한 비평적 성찰의 기능자가 되고, 둘째, 변함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이웃과의 타자성 안에서 발견하게 하며, 셋째, 비평적 성찰을 통하여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요소들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 고려하고 계획하여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돕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삶과 경험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론과 실천이 나누이지 않으며, 성찰함으로 행동하고 행동함으로 바른 성찰로 나아가도록 돕는 프락시스의 본질적 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교회의 방향성, 강단에서의 메시지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프락시스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비평적 성찰의 원천이요, 기독교 이야

82) Thomas H. Groom, "The Spirituality of The Religious Educator," *Religious education* 83(1988), 11.

83) *Ibid.*, 12.

84) 공중파 방송이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는 교회의 책임감 있는 공익성과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다. 윤성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 신학적 방법론-헬무트 쉬비어(Helmut Schwier)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9(2020), 83.

85) Thomas H. Groome, *Educating for Life*, 83.

기와 비전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보다 실천적이며 공적이고 참여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십자가의 프락시스는 이러한 복합적인 현실의 이면을 진단함으로써 충돌하는 그것에 저항하며,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 및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삶의 프락시스와의 대화를 통하여 대안의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

설교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써내려가며,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을 새기고 제자됨을 이루어나가는 프락시스적 행위가 된다.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으로서의 십자가는 오늘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왜곡되고 혼돈된 현상들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제자도로서의 프락시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를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COVID-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목회현장 속에서, 십자가로 성찰되어야 할 우리의 실천과 제자도를 좇아야 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프락시스를 추구하는 설교사역을 통하여 자기 존재회복, 제자도의 회복, 타자성의 회복, 공공성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의 교회됨과 신앙적 본질을 회복해 갈 것을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 고재길. “디트리히 본회퍼의 사회윤리에 대한 소고.” 「장신논단」 37(2010), 117-51.
- 김광석. “다상황적 현실, 텍스트해석과 설교의 계시성에 관한 연구-텍스트, 공동체, 삶의 유기체적 순환-.” 「신학과 실천」 56(2017), 107-37.
- 김병석. “급변하는 사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의 예배와 설교의 위치.” 「신학과 실천」 59(2018), 153-82.
- 김성실. “파커 팔머의 진리공동체의 교육적 적용.” 「기독교교육정보」 37(2013), 201-41.
-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 \_\_\_\_\_. 『현대설교 코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2.
- \_\_\_\_\_. “포스트모던 시대에서의 설교.” 「장신논단」 17(2001), 339-61.
- 김창훈.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신학지남」 제88권(2021), 311-81.
- 김현수. “오늘 우리를 위한 디트리히 본회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막스 스택하우스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신학사상」 157(2012), 191-230.
- 데이비스 데이/ 최승근 역. 『성육신적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CLC, 2018.

- 리처드 미들턴/ 김기현, 신광은 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 파주: 살림, 2007.
- 심영환. “파커 파머(Parker Palmer) 진리공동체이론의 메타프락시스적 성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2019.
- 안성진.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교육 프락시스의 관계성-Michel Foucault와 Christopraxis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 논총』 15(2007), 207-46.
- 윌터 브루그만/ 이승진 역. 『탈교회 시대의 설교』. 서울: CLC, 2018.
- 유재원.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설교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과 실천』 78(2022), 81-102.
- 윤성민. “코로나19 사태에서의 미디어 영상예배를 위한 실천신학적 방법론-헬무트 슈 비어 (Helmut Schwier)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9(2020), 67-89.
- 이규호. 『앎과 삶: 解釋學的 知識論』. 서울: 좋은날. 2001.
-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이은경. “기호자본주의 시대 마음의 오작동과 몸을 통한 치유가능성 -성육신적 신학과 신앙감수성-.” 『신학과 실천』 79(2022), 693-718.
- 정인교. “POST-COVID 시대의 설교.” 『신학과 실천』 71(2020), 147-174.
- 존 카바나/ 박세혁 역.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nterVarsity Press, 2006.
- 찰스 캠벨/ 김운용 역. 『실천과 저항의 설교학: 설교의 윤리』.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4.
- 채정명. “교회의 책임성 회복을 위한 설교의 프락시스 연구.” 『설교한국』 16(2022), 77-111.
- 최윤식.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진봉. “본문과 삶 간의 유비적 읽기로서의 새로운 설교학에 대한 이해.” 『장신논단』 41(2011), 261-288.
- \_\_\_\_\_. “새로운 설교학의 신학적 토대인 해석학에 대한 연구.” 『설교한국』 1(2009), 147-186.
- 디트리히 본회퍼/ 김순현 역.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서울: 복있는 사람, 2018.
- \_\_\_\_\_/ 정현숙 역. 『디트리히 본회퍼: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서울: 좋은씨앗, 2015.
- 존 갓시/ 유석성, 김성복 역.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Childs, Brevard.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 Greidanus, Sidney.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

- Inte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 \_\_\_\_\_.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Toronto: Wedge, 1970.
- Groome, Thomas H. "The Official "Mind of the Church" on Catechesis: Where Are We Now and What Are Our Horizons?"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no.76(2015). 192-226.
- \_\_\_\_\_. "Total Catechetical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no.5(2004), 7-24.
- \_\_\_\_\_.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The Way of Shared Praxis*.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 \_\_\_\_\_. *and Parent*. Allen, Tx.: T. More, c1998.
- \_\_\_\_\_. "The Spirituality of The Religious Educator." *Religious Education* vol.83 no.1(1988). 9-21.
- \_\_\_\_\_. "The Critical Principle in Christian Education and The Task of Prophecy." *Religious Education* vol.72 no.3(1977). 262-73.
- Green, Joel B. and Max Turner. *Between Two Horizons: Spanning New Testament Studies and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0.
- Jose Ramon Irizarry-Mercado. "Praxis E Identidad: Discourses and Practices of Puerto Rican Religious Education in the Works of Domingo Marrero and Angel M. Mergal, 1935-1965." Ph.D., Northwestern University, 2001.
- Perrin, Norman. *The New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4.
- Stott, John R.W. *The Cross of Christ*.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86.



# 논 찬 1

##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십자가 프락시스의 설교: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병 석 박사

(호서대학교 / 실천신학 / 예배설교학)

### I. 들어가는 말

세상의 많은 이론들은 연구의 결과이고, 연구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사고의 압축된 결과이다. 신학적 이론과 그 결과는 성서에 기초한 신앙의 실제화에 따른 명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실천신학은 신학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언제나 고민하게 하는 신학 분야이다. 한편으로, 이론과 실천은 각각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론 자체만 연구해도 나름의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실천신학에서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실제적 삶과의 연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 실천에서 발견되는 이론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대이다.

본 연구는 삶에서의 성찰을 중심으로 프락시스(Praxis)가 신앙공동체, 교회와 사회적 상황, 문화에 이르는 과정들을 비평적으로 성찰하여 삶의 변화를 추구해 가는 실천신학적 방안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그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설교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취를 프락시스 개념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이 말하는 인식론에 대한 이분화의 극복으로, 실천적 삶의 프락시스(Praxis) 개념을 말한다. 그룸이 말하는 프락시스는 ‘올바른 실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삶의 방식’이며, ‘삶의 성찰’을 포함한다고 한다. 즉 인간의 행위와 그 안에서의 깨달음과

반성이 성찰에 관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프락시스로서의 설교에서 비평적 성찰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성경적, 신학적 점검을 돕고 급격한 변혁이 진행되는 현 시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는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프락시스를 설교에서 뉴노멀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상실된 요소들에 저항하고 회복된 공동체 형성을 추구함으로써, 비평적 성찰의 원천이 되는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것으로서, 연구자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 이야기(케리그마)가 오늘을 살고 있는 현실에 변함없이 실천적 지혜를 주는 프락시스가 된다고 설명한다. 설교의 목적은 십자가의 프락시스를 형성해 가야하며,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와 연관되게 하여, 이에 동참하고 행동하게 하는 실천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다. 설교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십자가의 프락시스는 제자도, 자기존재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현실의 프락시스를 점검하는 비판적’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와 책임감을 주는 기독교 비전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 II. 논의를 위한 질의

### 1. 설교의 해석 과정에서 ‘비평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실제적인 방법, 혹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자는 “비평적 성찰은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비전의 원천이 되며 참여자들의 행동에 관한 반성”이라고 설명하였고, 프락시스에 의한 설교의 내용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교의 해석은 비평적 성찰을 활용한 삶의 프락시스와 복음의 프락시스와의 변증법적 대화를 통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성찰된 삶”의 복음적 경험과 성장으로 이끈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말하는 ‘설교해석’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며, 그것의 ‘비평적 성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설교자와 신앙공동체의 노력에는 어떤 것을 고려할 수 있는가?

### 2. 십자가의 프락시스, 십자가 이야기를 위한 설교의 역할로서, 기독교의 비전은 어떤 십자가 프락시스 설교양식으로 구성될 때 안정적인 설교강단이 될 수 있는가?

연구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복음의 이야기(케리그마)는 오늘의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실천적 지혜를 부여하는 프락시스가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설교의 목적은 회중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프락시스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신앙 공동체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와 연관시키고 동참하게 하여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강력한 실천적 힘이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연구자는, 십자가 이야기는 오늘날 변함없는 설교의 역할이며 동시에 십자가의 프락시스는 “제자도, 자기존재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현실의 프락시스를 점검하는 비판적 기능자”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기독교의 비전”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십자가 이야기와 그 비전을 위한 설교 역할로서의 설교양식 프락시스로서 좀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설교양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 3. 예수의 내러티브를 설교할 때 상상과 이미지의 요소들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연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서 내러티브로 들을 때 진리를 경험하고, 나약하고 왜곡된 존재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와 그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상상을 통하여 인식되고 실재로 경험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상상과 이미지의 활용을 어떤 설교방식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설교학적 실제성을 보여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가?

## II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설교에서 십자가 프락시스의 핵심적 실천에 대하여 기독교 이야기와 그 비전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설교학, 설교강단이 아니라 비평적인 시각에서 왜곡된 신학적 실제성을 반성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설교 신학적 방법론을 실제적 구체성으로 실현하고자 다시금 십자가라는 기독교 본질의 주제를 드러낸 것이다. 연구자가 설명하듯 “프락시스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비평적 성찰의 원천이요,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를 보다 실천적이며 공적이고 참여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으로서의 십자가는 오늘날 왜곡되고 혼돈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프락시스에 도전을 주는 듯하다. 이것은 연구자가 말하듯 설교의 열매로서 존재회복, 제자도의 회복, 타자성의 회복, 공공성의 회복, 교회의 교회됨, 신앙적 본질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시도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귀한 연구로 신앙과 신학, 신학과 실천이 분리되는 현실 속에서, 이론과 실천이 서로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막연한 사고에 멈춰있는 듯 보이는 현 시대에, 다시금 지금의 설교 환경을 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 논 찬 2

# “뉴노멀 시대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십자가 프락시스의 설교: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용 성 박사

(한신대학교 / 실천신학 / 설교학)

1. 논평에 앞서 귀한 논문을 발표하는 채정명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람들이 대면하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박사님의 관심과 노력이 귀하게 느껴진다.

2. 본 논문은 뉴노멀(New-Normal)을 특성을 비대면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우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활용을 위한 교육과 인식을 확산시키며, 설교자 개인의 경쟁력 강화, 누구나 이해가능한 설교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귀납적 설교, 이야기 설교, 대화 설교 및 다양한 공연을 가미한 설교 등, 설교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다양한 주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삶과 분리되지 않는 신앙의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간다.

문제를 제대로 확인해야 해결방안도 나온다. 이에 연구자는 뉴노멀 시대 교회의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주장한다. 첫째, 성도들이 편의만 주장하고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정성과 수고는 외면하는 제자도 상실. 둘째, 소비주의 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해체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로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존재 상실. 셋째,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인격을 해체하고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개인주의로 인한 타자성 상실. 넷째, 사회, 정치, 문화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사명을 저버리는 공공성 상실. 이러한 상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저버리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는 비평적 성찰과 프락시스에 관심을 한다. 연구자는 설교의 프락시스가 단순히 행위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신앙적 경험, 삶과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비평적 성찰이라고 한다. 이론과 실천, 신앙과 삶, 내용과 경험의 이분화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실천적 삶의 형성을 위해 해석학적 차원을 지닌 그룸(Thomas H. Groome)의 공유 프락시스(Shared Praxis) 방법으로, 연구자는 성경이라는 텍스트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실과 경험이라는 컨텍스트와의 대화를 통해 삶-성찰-삶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나의 경험과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야기, 비평적 성찰을 통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담긴 설교에서 신앙의 프락시스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이야기와 비전의 상징은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케리그마)은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천적 지혜를 부여한다. 또한 언약을 통해 신앙을 형성하고 책임을 통해 프락시스를 강조한다. 설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청중의 삶의 자리에 던져 주어야 한다. 십자가 중심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첫째, 거짓된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얻는 참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자아 긍정). 둘째,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웃과 죄 용서의 친교를 행하고, 섬김과 솔선수범의 제자도의 회복. 셋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 형성. 넷째, 정의에 관심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사화와 개인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공공성의 회복. 이는 뉴노멀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회복하는 설교의 프락시스가 될 것이다.

3. 필자가 보기에 설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를 중심으로 담론을 만들고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연구자의 주장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의 상태를 비평적으로 성찰하므로,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정체성과 타자성을 회복하고, 인지, 정서, 행동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현실을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많은 설교자들이 귀담아 듣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뉴노멀시대 약해진 교회와 강단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시대, 설교자에게 좋은 비전을 심어줄 것이라 여겨진다.

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 제 4 발표

# 『목민심서』에 나타난 건강한교회를 위한 리더십 요소에 대한 고찰

이 영 미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미래교육리더십)

###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주요한 특징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탈 대중사회, 포스트 모던과 다양화 사회, 즉 디지털 정보시대, 개방화, 다국적 기업화,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지식경제사회로의 변화가 생김으로 조직내에서도 개인주의가 심화하였다. 개인주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면서 나노사회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나노사회의 특징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개별성, 비공동체성, 파편성으로 드러난다.<sup>1)</sup> 이런 개인주의적인 나노 사회 성향과 함께 한국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더 부각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그 이전으로 회복을 기대했지만, 개인주의와 개별성이 극대화되면서 공동체로 모여 대면 예배드리는 회복율이 더뎠다. 대면 예배 보다는 비대면 예배를 선호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누는 모임보다 개인이 시간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분위기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흔들렸다.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

1) 조성호, “‘나노사회’ 파편화 극복을 위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 『신학과 실천』 84(2023), 896-97.

으로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예배만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경제침체로 구제가 약화되었다. 교회의 역할 중 고아와 과부등 연약한 자들 돌보고 구제를 해야하는데, 남을 위해 재정을 쓴다는 것에 주춤한다. 넷째, 교회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기존교회의 실망감을 가지고 교회의 제도 밖으로 나간 '가나안 교인'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226만명이 넘어가는 현실에 직면했다.<sup>2)</sup>

교회는 공간을 제한한 펜데믹과 더 부각된 개인주의로 인한 여러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보는 시선도 예전보다 곱지 않다. 한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2023년 1월에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는 21%로 지난 2020년도 6차 조사보다 10.8%가 더 하락하였다.<sup>3)</sup> 개신교, 카톨릭, 불교 이 세 종교의 사회활동 부분에서도 카톨릭인이 1위였고, 개신교는 2위였다. 사회에 대한 기여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다. 한국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4%였다.<sup>4)</sup> 즉, 한국교회의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점으로는 '나만 옳다는 자세'와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윤리와 도덕실천이 가장 많이 나왔다.<sup>5)</sup>

안과 밖으로 한국교회가 직면한 모습은 교회에 대해 성찰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상기시킨다. 단순히 문제를 알고, 인정하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교회는 다시 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속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는 초월성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세상과 연결되어있어야 한다.<sup>6)</sup> 하나님과의 초월성과 세상과의 연결성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하나의 공동체 즉 조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신약에서는 예수그리스도의 몸이다.<sup>7)</sup> 디트리히 본 회퍼는 “교회는 세상안에 존재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남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8)</sup>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

2) 임성국, “코로나19 중 교회 건강성 회복 가능성 상승,” 『한국기독교공보』 (2023. 03. 02.).

3) 기윤실,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 발표회,” 『2023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 조사자료집』, 106.

4) *Ibid.*, 106.

5) *Ibid.*, 107.

6) 계재광,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틀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019), 433.

7) 황인태, “교회 갱신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63(2019), 680.

8) 본회퍼/ 김순현 역,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370.

가 필요하다. Mark Dever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을 더욱 더 반영하는 교회”로 정의한다.<sup>9)</sup> 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 예수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그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이어야 한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자질에 대해 Christian A. Schwarz 는 여덟가지의 질적인 특성과 여섯 가지의 생명체적 원리로 제안한다. 질적 특성은 (1) 리더십, (2) 은사 중심 사역, (3) 열정 있는 영성, (4) 체계적인 기능들, (5) 영감 있는 예배, (6) 총체적인 소그룹, (7) 필요 중심적 전도, 그리고 (8) 사랑의 관계이다.<sup>10)</sup> Dever가 건강한 교회 요소로 능력있는 리더십을 선택한 것은 교회 공동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지도력을 가진 리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회 리더십은 교회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한 부분으로 교회 공동체와 상호협력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up>11)</sup> Rick Warren은 교회의 리더로서 건강한 목회자의 특성을 세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진정성이다. 자신 스스로의 약점을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둘째, 통전성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셋째는 학습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sup>12)</sup>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 곳이고, 건강한 공동체에 건강한 리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해관계이다.

교회 즉,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리더십이란 용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1800년부터 기록이 되어있고, 지난 수십 년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주제이다.<sup>13)</sup> Peter Drucker가 “리더십이 대유행이다”라고 언급하였듯이 2020년이 넘어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연구되고 있다.<sup>14)</sup> 리더십의 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층 더 세분화, 다양화되었다. 다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리더십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조직체의 구조 안에서 각자 개인적 관점에 따라 가장 관심있는 현상의 측면을 강조하여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sup>15)</sup> 그럼에도 다양한 리더십 정의에서 공통된 용어가 있는데, 과정(Process), 영향(Influence), 공동체 또는 집단(Group), 공통된 목표(Common

---

9) Mark E. Dever, *What Is a Healthy Church?* (Wheaton, IL: Crossway, 2007), 40.  
 10)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12. 임채남 (2014)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한 실천적인 고찰 :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31, 105-132 재인용.  
 11) 임채남,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한 실천적인 고찰: 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31(2014), 117.  
 12) Warren, Rick, “Comprehensive Health Plan: To Lead a Healthy Church Takes More Than Technique,” interview by Ed Rowell and Kevin Miller, *Leadership* XVIII, no. 3 (summer 1997), 26.  
 13) Peter G. Northouse,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8th edi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9), 2.  
 14) Peter Drucker. *Managing for the Future*. (United Kingdom: Taylor & Francis, 2013), 100.  
 15) 양상진, 『CEO 리더십유형과 조직성과』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2007), 21.

Goal)이다.<sup>16)</sup> 종합해 보면, 리더십이란 어떤 상황에서 공동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sup>17)</sup> 풀러 신학교의 Robert Clinton 교수는 기독교 리더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책임을 받은 사람이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sup>18)</sup> 일반 리더십과의 다른점은 목표가 공동체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목표는 다르지만, 리더십의 요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John P. Kotter 교수는 리더십은 조직을 만들거나 크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그 비전에 맞추어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실현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 정의한다.<sup>19)</sup> 리더십없이 변화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리더가 건강해야 한다.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목회자의 신뢰도를 구분해서 조사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목회자의 신뢰도는 6차 2020년도 30%에서 7차 2023년도에 20.8%로 낮아졌다. 한국교회 교인에 대한 신뢰도도 2020년도에는 32.9%에서 2023년도에는 20.6%로 낮아졌다. 한국교회 리더와 한국교회 교인의 신뢰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sup>20)</sup> 유기체와 같은 교회 조직일수록 리더의 자질과 영향력은 그 조직을 대표한다. 한국 교회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며,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리더십이 절대적이다.

한국 교회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한국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성경적인 고찰과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행된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비롯한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한국 교회에 적용한 연구를 볼 수 있다.<sup>21)</sup> 그동

16) Peter G. Northouse, 5.

17) *Ibid.*, 5.

18) J. Robert Clinton,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8), 14.

19) John P. Kotter, *Leading Chan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1996), 25.

20) 기윤실, 19.

21) 리더십 이론을 한국교회 리더십에 적용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양병모. "상황적 리더십의 목회적 적용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34(2015), 75-102.;조성호. "미래목회를 위한 기독교 리더십의 구성방식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no.94(2014) : 219-241.;계재광.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틀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4(2019), 431-456.;황인태. "교회 갱신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63(2019), 677-709.;황인태. "교회 갱신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63(2019), 677-709.;이종민 "통일 한국 시대에 대비한 교육리더십 계발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함의" 한국개혁신학 69 pp.131-172 (2021) : 131.;김광건. "미래 기독교 리더십의 공간성의 문제."



안 수행된 연구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수행된 리더십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에 적용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문적 바탕으로 연구된 리더십을 한국교회에 적용한 연구는 그 빈도수에 비교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다산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집필된 『목민심서』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산이 살았던 시대는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가 재위하는 기간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으로 조선 후기인 역사적인 변동기라 할 수 있다. 16~17세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후 외부로 부터의 침략위험은 사라졌지만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또한 국가의 기강은 무너졌고, 당파와 뇌물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좌우되었다.<sup>22)</sup> 매관매직이 성행하였으며, 지방관리들은 백성 즉, 농민을 수탈하는데 여념이 없었다.<sup>23)</sup> 다산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혁은 백성들과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당시의 목민관들이 제 구실을 다하여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는 목민관들로 하여금 ‘성현(聖賢)의 유의(遺義)’를 받들어 조선 후기사회가 처했던 어려움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동기로 『목민심서』 저술하였다.<sup>24)</sup> 기독교 리더십에 대한 요소를 『목민심서』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 조선 후기와 21세기는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공적 윤리와 신뢰도가 하락하였던 시기라는 유사점이 있다. 또한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는 애민(愛民)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민관들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 저술한 내용이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리더십의 요소를 고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목민심서』의 애민정신에 담겨있는 섬김은 성경과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목(牧)과 민(民)의 개념을 찾고, 건강한 교회 리더십 요소를 찾아 제안하고자 한다.

## II. 목민심서

### 1. 『목민심서』의 집필의의

---

『복음과 실천신학』 66(2023), 11-36.; 조성호. "‘나노사회’ 파편화 극복을 위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 『신학과 실천』 84(2023), 85-114.

22) 장동희, “목민심서를 통해 본 지방 행정책임자의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권 4호(2003), 792.

23) 정희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정치철학을 통해 본 공적윤리 연구-『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7(2010), 126-27.

24) 송영오, “茶山 丁若鏞의 牧民官倫理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2008), 189.

『목민심서(牧民心書)』는 1818년(순조18년)에 다산 정약용이 지방관을 비롯한 관리의 바른 마음과 몸가짐에 대해 기록한 지침서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 수록된 책이다. 다산이 살았던 조선사회는 목민관의 횡포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다. 다산은 당시의 참상을 기민(飢民)시에 담고 있다.<sup>25)</sup> 다산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혁은 백성들과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당시의 목민관들이 제 구실을 다하여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는 목민관들로 하여금 ‘성현(聖賢)의 유의(遺義)’를 받들어 조선 후기사회가 처했던 어려움을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동기로 『목민심서』 저술하였다.<sup>26)</sup> 당시 다산이 유배 생활로 현실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목민심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심서(心書)”라는 말은 백성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이를 실천할 수 없기에 마음으로 쓴 글이다. ‘목(牧)’의 대상인 ‘민(民)’에 대한 다산의 관심과 백성을 대한 애정 때문이며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 『목민심서』의 구조

『목민심서』는 부임에서부터 수령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인 해관(解官)에 이르기까지, 12개의 편으로 구성되어있다. 『목민심서』는 구체적인 실무를 하기 전 개인이 습득하여 갖추고 다짐해야 할 요소인 율기(律己)를 소개한 다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공(奉公), 애민(愛民)으로 세가지 총론격으로 애민정신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그 뒤를 이어 세부조항인 육전(六典)으로 각 부문별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조인 실무적인 면들과 백성들을 위한 진황(賑荒) 즉, 어려운 환경에 구제할 방법이 수록되었다. 이와 같이 『목민심서』는 부임과 해관을 포함하여 총 12편(篇)으로, 각각 6조(條)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엮었다. 『목민심서』의 구조를 보면, 모두 백성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다른 목민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목민심서』는 ‘민(民)’의 존재가 전체구조를 이룬 것이다. 어느 편이건 백성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다산은 ‘천(天)’과 ‘민(民)’이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보았다.<sup>27)</sup> 다산이 ‘천(天)’과 ‘민(民)’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가 16세 때부터 천주교를 접하고 교리를 연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28)</sup> 정희태는

25) 정약용, 여유당전서, 기민시(飢民詩). 잠시 거친 냇가에 나가서 / 무릎 펴고 우는 아이 달래며 / 머리 숙여 이를 잡으니 / 두 눈에 피눈물 줄줄 흐르네.

26) 송영오, 189.

27) 임형택, “특집 : 다산(茶山) 학문, 사상의 재조명 ;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이해 -다산 정치학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3(2007), 7-38.

28) 최한규, “茶山 丁若鏞 牧民思想의 實學的 談論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8.

『목민심서』를 ‘백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며, 백성이 최우선이기에 위정자, 목민관은 단지 백성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고 말한다.<sup>29)</sup>

다산은 목민관은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에 『목민심서』는 부임(赴任)과 해관(解官) 즉, 그가 부임하는 것부터 이임하기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하였다.

### 3. 『목민심서』에서의 목(牧)과 교회 리더

다산의 『목민심서』 자서(自序)에 보면, “옛날 중국의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의 뒤를 이으면서 열두 제후에 불러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기르게 하였으며 주문왕이 정치제도를 세울 때, 사목(司牧: 지방장관)을 목부(牧夫)라 하였고, 맹자는 평륙(平陸)에 갔을 때, 소중히 가축 기르는 것을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백성을 양육하는 일을 목(牧)이라 한 것은 성현의 남긴 뜻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sup>30)</sup> 이 뜻은 백성들은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산이 살았던 조선 후기는 지배계층으로 목(牧)으로 피지배계층은 민(民)으로 보았고 대다수가 농민이었다.<sup>31)</sup> 다산은 목과 민의 갈등구조를 보며 그의 저서 『원목』에서 “목(牧)은 민(民)을 위해 존재하는가? 민(民)이 목(牧) 위해 사는가?” 질문을 던진다. 그는 “목(牧)은 백성(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民爲民有也).”라고 답한다.<sup>32)</sup> 당시 통치자를 천자(天子)라고 표현하는데, 다산은 통치자로서의 천자(天子)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신인(神人)이 아니라 백성의 추대로 목자의 임무를 맡았다고 말한다.<sup>33)</sup> 즉,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권은 백성에 계서 나왔으며, 통치자는 천명이나 세습에 의해서가 아닌 백성에 의해서 추대가 되었으므로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백성은 언제라도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sup>34)</sup> 목자는 백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돌보는 일이 주된 임무인 것이다. 다산은 목민은 목(牧)과 민(民), 두 사람이 마주하는 관계로서 목(牧)은 자신이 백성이라면 목(牧)에게 원했을 것을 미루어 헤아려 백성에게 베풀어 덕을 실행하는 것이며, 백성의 욕망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백성 개개인을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생활, 질병까지 무한 돌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sup>35)</sup>

29) 정희태, 134.

30) 정약용/ 안문길 역, 『다시 읽는 목민심서』 (서울: 비채의 서재, 2018), 12.

31) 장승희, “다산 정약용의 공직윤리 연구,” 『동양철학연구』 30(2002), 86.

32) *Ibid.*

33) 최한규, 103.

34) *Ibid.*, 113-14.

35)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조선시대사학보』 52(2010), 157-196.

다산의 생각한 목(牧)에 대한 개념을 보면, 백성 즉, 민(民)을 근본으로 여기고 애민(愛民)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위민(爲民)으로써 백성을 위해서 실천하는 자이다. 목(牧)은 교회의 리더로 생각할 수 있다. 교회 리더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리더로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예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다(요 10:11). 또한,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있다(마20:28). 빌립보서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7-8)이라고 했다. 예수는 목자로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교회의 리더 또한, 목자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 4. 목민심서에의 민(民)과 교회공동체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 양천제 즉 양민과 천민으로 되어있지만, 실체는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의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양반들은 관직 즉 벼슬 길에 오를 수 있었고, 이들에게는 세금과 부역에서 면제된 특권계층이었다.<sup>36)</sup> 중언계층은 양반과 상민사이의 계급으로 기술직과 의원직이 있었고, 관청에서 양반들을 도와서 일했다. 천민은 노비, 백정, 무당 및 광대로 주로 국가의 관청이나 양반집에서 일을 하며,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 생활의 자율권이 없었다.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은 부국강병과 경세를 위한 것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민주의(爲民主義) 또는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근본으로 하고 실학자들도 백성을 국가의 기본으로 여기고 백성들을 돌본다는 양민론(養民論)을 계승하여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장 으뜸이 되는 요건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백성들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쉽지 않았다.<sup>37)</sup> 양반들은 그들의 절대적인 권위와 지위를 사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것을 자신의 부를 위해 축적했다.

다산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백성들이 탐관오리와 사악한 아전들의 횡포 등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목도함으로 조선시대가 요구하는 백성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것에 대해 『목민심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38)</sup>

36) 명성준, “목민심서에 나타난 정약용의 민의수렵과 그 방안들,” 『국가정책연구』 21, no.2 (2007), 52.

37) 명성준, 53.

38) 정약용, 15.

성현의 시대는 오랜 과거이며, 그 말씀도 희미해지고, 그도 또한 세월에 묻혀 오늘 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 급급할 뿐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은 곤궁에 시들고 병들어 죽어 친구령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 현실임에도 수령된 자들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다산 정약용은 당시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지어 매우 예리하게 관찰하고,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느꼈다.<sup>39)</sup> 그는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개선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목자(牧者)란 오직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sup>40)</sup>

다산은 ‘목(牧)’과 ‘민(民)’의 개념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도자와 백성을 생각하여 개념을 정리했다. 이는 국가가 아닌 조직이나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조직이나 공동체마다 리더와 팔로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교회 조직에서도 목(牧)과 민(民)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리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반영하는 곳이어야 하며, 교회 리더는 자신이 목자로서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며 지에 따라 교회 리더십은 달라진다.

### III. 목민심서에 나타난 건강한 교회 리더십 요소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은 목자인 리더로서 누구인지 인식을 하고, 백성인 교회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출발한다. 건강한 교회 리더십 요소로 『목민심서』의 애민

39) 최한규, 52.

40) “목민자(牧民者)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조와 쌀 그리고 삼베와 명주실을 만들어 목민관을 섬기고, 또 수레와 말 그리고 수레꾼을 내어 목민관을 전송보내고 환영도 하며, 또는 고혈(膏血)과 진수(津髓)를 짜내어 목민자를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자를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목민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권 10집 원목(原牧)편 한국고전종합DB 접속 2023.7.30.,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grpId=&itemId=GO&gubun=book&dep=5&cate1=H&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MP\\_0597A\\_0100\\_010\\_0070&viewSync2=](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grpId=&itemId=GO&gubun=book&dep=5&cate1=H&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MP_0597A_0100_010_0070&viewSync2=)

사상을 기준으로 6가지로 고찰하였다. 청렴을 가진 인성(Character),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겸손(Humility), 가르치는 자로 양육(Upbringing), 해관(解官)으로서의 공적인 책임(Responsibility), 경청을 통한 소통(Communication), 돌봄과 수용을 위한 환대(Hospitality)이다. 이를 CHURCH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건강한 교회 리더십 요소 CHURCH



### 1. Character (인성)

『목민심서』에서 첫 번째 부임 이후 바로 율기(律己)가 나온다.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율기(律己)는 남을 먼저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바르게 관리해야 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말한다. 다산이 생각하는 목민관은 왕이 하는 일들과 비슷한 정도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며 백성들의 애환과 고락을 살피는 자들이기에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렇기에 목민관 역할에 대해 다산은 자연스럽게 목민관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의 요구로 이어진다.

인성은 행동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는 “의도, 성향 및 미덕의 패턴”을 의미한다.<sup>41)</sup> 『목민심서』에서의 인성은 직궁(飭躬)과 청심(淸心)이라 할 수 있다. 직

41) The power of character (Yale Leadership Expectation: Demonstrate integrity & character)접속 2023.08.13.

<https://your.yale.edu/power-character-yale-leadership-expectation-demonstrate-integrity>

궁은 단정한 몸가짐이며, 청심은 깨끗한 마음가짐이다. 제1조 칙궁에서 “공무 중 여가가 생길 때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조용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한 생활로 이끌 생각을 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참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며 몸을 단정히 하고 백성을 위해 생각을 하되, 그들이 편안한 생활과 참된 삶을 누리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르는 사람에게 부담없이 대하고, 얼굴을 온화하게 하며 삶의 사정과 생활 형편을 묻는다면,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목민관으로서 백성들에게 대하는 얼굴 표정과 자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청심(淸心) 즉, 깨끗한 마음가짐 편에서는 청렴은 수령의 덕목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원이기에, 청렴하지 않고는 수령노릇을 할 자가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청렴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예로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탐욕을 삼가며 청렴을 교훈으로 받았다고 말한다.<sup>42)</sup> 그는 청렴의 상대적 개념이 탐욕이라 생각하고 마음에서 탐욕을 제거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청렴한 사람이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렴을 좇아서 살면 청백리(淸白吏) 즉, 깨끗한 관리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탐욕을 좇아서 탐관오리가 될 것인지는 목민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기독교 역사는 초기부터 성직자의 탁월한 윤리성을 일관성 있게 강조해왔다.<sup>43)</sup> 베드로는 교회 리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한다(벰전5:2-3). William Willimon은 목사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의 차원에서 규명하려고 했다. 그는 목회자의 소명을 생각할 때, 목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도덕성, 인성과 연결된다고 주장한다.<sup>44)</sup> 도덕성은 소명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리더로서 부도덕성이 드러날 때, “목사도 인간일 뿐이다”표현하며, 목사의 실책을 대수롭게 않게 보는 것은 ‘인간’이라는 말을 교묘히 오용하는 것이며, 목사의 소명을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up>45)</sup> Cyprian은 교회의 리더는 청렴한 삶의 유지, 생각의 순수, 침묵, 행동의 모범, 이웃을 향한 동정심, 숭고한 명상, 선한 삶, 내적 삶을 돌보는 일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sup>46)</sup>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빅데이터로 2019년부터 한국교회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

---

-character#:~:text=Whereas%20character%20refers%20to%20%E2%80%9Cthe,behavior%2C%20regardless%20of%20external%20pressures.

42) 율기 2조 청심(淸心)에서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빛나면, 이것 역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민관으로서 청렴이라는 소문이 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43) 김순환, “21세기의 목회와 윤리,” 『복음과 실천신학』 19(2009), 18.

44) *Ibid.*

45) William Willimon/ 최종수 역, 『21세기형 목회자』(서울: 한국기독교 연구소, 2017), 403-24.

46) *Ibid.*

분석하였다. 교회의 4대 이슈는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목회자 범죄였다. 그중 ‘목회자의 범죄’가 앞도적으로 가장 많았다.<sup>47)</sup> 목회자의 범죄는 성범죄, 보이스 피싱에 가담, 교회 현금 유용 및 횡령 등이었다.<sup>48)</sup> 2019년부터 목회자의 범죄는 교회의 4대 이슈에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분석된 통계자료를 보듯이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가장 큰 요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의 윤리적 타락과 변질이다.<sup>49)</sup> 리더는 그 조직을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닌 리더는 건강한 교회를 이끌 수 없다. 건강한 교회 리더십은 리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풀리신학교 기독교 리더십 교수인 Robert Clinton은 영적 리더십 개발로 6단계를 열거했다. 1단계로 주권적인 토대(Sovereign Foundations), 2단계는 내적 삶의 성장(Inner Life Growth) 3단계는 사역의 성숙기간(Ministry Maturing), 4단계는 삶의 성숙(Life Maturing) 5단계는 수렴 (Convergence) 마지막 단계로는 여운(Celebration or Afterglow)이다.<sup>50)</sup>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리더십의 기초단계로 목회자의 자질로서 성품을 개발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내적 삶의 성장은 『목민심서』의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일맥상통하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리더로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고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 리더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회의 리더십 중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 언급할 때, 청렴한 도덕성은 그 중요성 만큼 교회 리더십에 서있는 리더들의 삶과 사역에서는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잘 전하는 설교자라면, 목회 행정을 잘하는 행정가라면 인성이 뒷받침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안에서는 이해하고 감내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그러나 교회 밖 시선에서는 신뢰성을 더욱 잃게 만드는 사례가 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회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성과 그 함양을 우선 순위로 두고, 건강한 교회 리더십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 2. Humility(겸손)

다산이 생각하는 목민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인(仁) 즉 효제자(孝弟慈)의 실천에서부터 출발하여 서(恕) 내지는 추기급인(推己及人)으로 나아간다.<sup>51)</sup> 제 마음을

47) 목회데이터연구소,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4대 이슈,” 「numbers」 178(2023), 7-8.

48) *Ibid.*, 12.

49) 조성호, “‘나노사회’ 파편화 극복을 위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 「신학과 실천」 84(2023), 94.

50) Robert Clinton, *Making of a Leader* (Navpress, 1988), 45-47.

51) 최진덕. “다산 실학의 구조와 그의 상복제도론.” 『다산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



기준으로 삼아 남의 마음을 추측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린다는 것을 말한다. 효(孝)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며 제(弟)는 형제간의 우애, 자(慈)는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이다.<sup>52)</sup>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약자의 입장을 헤아려 돌보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겸손이라면 애민육조(愛民六條)에서 찾을 수 있다. 애민육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인과 어린이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한다. 양로(養老) 즉, 노인을 대할 때는 예를 갖추서 위로하고, 괴로움, 고통, 질병 등을 공손한 말로 하라고 한다.<sup>53)</sup> 연약한 어린이를 대할 자세도 알려준다. 자유(慈幼)에서는 어린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선 왕 때부터 내려온 큰 정사라고 언급한다. 힘이 없고 누구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나이 많은 어른과 나이가 적은 어린이를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한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다산은 목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 구명숙과 김수동은 『목민심서』에서 섬김의 대상을 환경적인 나이와 관련하여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으로 본다. 수직적인 차원은 아동과 노인에 대한 섬김으로 보고, 수평적인 측면은 다산이 생각하는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즉, 사궁(四窮)으로이다.<sup>54)</sup> 다산은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연약한 자를 하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仁)을 행하는 자라고 말한다. 『목민심서』는 목자와 백성 즉, 리더와 구성원에 대한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 맞춰져 있다.<sup>55)</sup> 겸손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에 대한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향한 실천은 섬김이다. 구명숙과 김수동은 효제자는 백성에 대한 섬김으로 표현하며 목민심서의 고유한 관계적 섬김으로 보았다.<sup>56)</sup> 다산이 보는 리더와 백성의 인간관계는 유기적으로 상호영향을 끼치는 만남으로 간주한다.

겸손은 자신이 이룬 성취나 업적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과 기회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sup>57)</sup> 성경에서 겸손(Humble)이란 단어는 구약과 신약 전체에 분포되어있다. 겸손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겸손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나은 사람으로

문화연구원, 1998), 397.

52) 구명숙 외1, 313.

53) 애민육조 제 1조 양로(養老)편에 “노인을 위로할 때는 예를 갖추 괴로움, 고통, 질병 등 공손한 말로 묻는 것이 예이다.”

54) 구명숙 외1, 296.

55) *Ibid.*, 303.

56) *Ibid.*, 313.

57) Kenneth Boa, 82.

여기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요소로 간주 할 수 있다. 겸손은 쉽지 않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겸손이 가능하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겸손의 예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권면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한다. 예수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적 권위에 이기적으로 집착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겸손을 드러내셨으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한다(마 11:29-30). 마가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있다.

목자로서 교회의 리더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이며, 교회 공동체는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 겸손의 시작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데에 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목자에게 요구된다. 겸손한 척한 모습은 오히려 외식하는 것이며, 다른 이들을 낮게 여기며 속이는 행동이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에 비칠 때 교회의 신뢰도는 회복되기 어렵다. 교회의 리더는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를 따라야 한다.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의 요소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다. 교회의 리더십 요소로 낮아짐 즉 겸손이 없으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 3. Upbringing(양육)

『목민심서』 예전육조에서 목민관의 주요 직책으로 가르침을 제시한다. 목민관이 가르쳐야 할 것은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부터 옳은 것과 그른 것, 장려해야 할 선한 일들과 지양해야 할 사사로운 일들까지 이른다. 제4조 흥학(興學)에서는 목민관의 책무 중 하나로 배움이 다시 일어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 당시에 학교상황에 대해 말한다. 조선후기 당시에는 학교에서 단순히 글을 읽는 것만 가르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에 다산은 예전의 학교처럼 예절을 익히고, 악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진 목민관의 역할은 배움의 터를 만들고 예를 배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참된 스승을 세우는 일도 목민관의 역할이다. 다산은 어진 목민관의 역할을 하려면 꾸준한 독서를 통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지혜를 습득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일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다산은 격물치지(格物致知) 방식을 제안했다. 즉, 독서를 통해 사물을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확장하고 넓히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에서 교회 리더인 디모데의 주요 책무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양육하는 것을 제시한다. 교회의 리더는 어진 스승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구성원을 양육해야한다. Rick Warren은 교회의 리더로서 건강한 목회자의 특성으로 학습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하였다.<sup>58)</sup> Mark Dever도 건강한 교회의 아홉가지 특징으로 성경적인 강해 설교(Expositional Preaching), 성경적인 신학(Biblical Theology), 복음(The Gospel), 성경적인 회심(Biblical Understanding of Conversion), 성경적인 전도(Biblical Understanding of Evangelism), 성경적인 구성원(Biblical Understanding of Church Membership), 성경적인 제자 훈련(Biblical Church Discipline), 성경적인 제자도와 성장(A Concern for Discipleship and Growth), 성경적인 교회 리더십(Biblical Church Leadership)이라고 말한다.<sup>59)</sup>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은 교회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교회의 리더도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한 양육을 열심히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접근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회의 리더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폭넓은 독서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꾸준히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해 줘야한다. 건강한 교회 리더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꾸준히 가르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과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꾸준히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 4. Responsibility (책임)

다산은 백성(民)은 목민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민관(牧)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목민관의 책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백성을 돌보고 양육하고 삶을 운택하

---

58) Rick Warren, "Comprehensive Health Plan: To Lead a Healthy Church Takes More Than Technique," interview by Ed Rowell and Kevin Miller, *Leadership* 18, no. 3 (summer 1997), 26.

59) Mark Dever,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 (United States: Crossway, 2013), 25.

도록 이끄는 책임이다. 당시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비일비재했다. 다산은 애민정신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위민(爲民)주의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목민관의 책임으로 보고, 그의 역할을 부임부터 해임하는 순간까지로 보았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마지막에 내려오는 해관(解官)이라 하겠다. 해관(解官)은 말 그대로 ‘벼슬을 놓아주는 것’을 말한다. 목민관의 영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벼슬을 교대하는 것부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때 행해야 할 행장 즉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남겨야 할 것까지 세세히 기록하였다.

교회의 리더는 교회 리더의 직분을 소명직으로 생각하고 해관(解官)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의 직분은 청지기로 표현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헌법에 기록한 목사의 직분으로 목사는 양떼를 보살핀다는 의미의 ‘감독’, 영적 양식을 나누어 먹이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로의 ‘목자’(렘3:15, 요10:11), 양들의 모범이 되며,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의미로의 ‘장로’(벧전5:1,3),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사자’(고후 5:20, 고전12:28)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한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 (눅12:24, 고전4:1)가 있다.<sup>60)</sup> ‘청지기’라는 용어는 ‘하인’이라는 뜻이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리더의 자리는 영원할 수 없다. 교회 리더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다른 이에게 이임 즉, 넘겨줘야한다.

건강한 리더십의 요소로 해관 즉 위임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하여 교회 리더의 성경적 계승방법과 청빙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김성진, 유연우, 이종락 등의 다수의 연구에서 한국교회의 부정적 계승 방법의 예로 교회 리더의 교회 사유화를 지적했다.<sup>61)</sup> 몇몇 대형교회의 리더는 해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녀에게 세습으로 그 권력과 지위를 물려주었다. 대형교회들의 ‘교회 세습’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안이라 보고,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하였다.<sup>62)</sup> 교회의 리더는 세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소명으로 세워지는 소명직이다.<sup>63)</sup>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도록 소명을 주시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다. 『목민심서』를 통한 교회 리더의 자질은 교회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과 함께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해관’하는 책임이라 하겠다.

## 5. Communication (소통)

60) 김성진, 유연우, “담임목사 청빙유형에 따른 공정성 연구,” 『신학과 실천』, 69(2020), 825.

61) 이용락, “담임목사 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 연구,” 『복음과 선교』 56(2021), 174.

62) 김성진 외1, 822.

63) 이용락, 175.

『목민심서』율기(律己)편에서 제 1조 칙궁(飭躬)에서는 목민관으로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담없이 대하고, 얼굴을 온화하게 하여 백성으로부터 삶의 형편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sup>64)</sup> 또한 형전편 제 1조 청송(聽訟)에서, 어진 목민관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이 편하게 들어주는 자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목민관에게 억울한 일 등을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목민관이 백성과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소통을 통해서 목민관은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억울한 일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에 능하지 못한 리더는 조직을 잘 이끌 수도 없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도 쉽지 않다. 소통은 듣는 기술을 말한다. Kenneth Boa는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듣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sup>65)</sup> 소통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소통의 목적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며,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선택하기 위해서이다.<sup>66)</sup>

잠언 18장 2절은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어리석은 행위로 표현한다.<sup>67)</sup> 또한 13절에서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고 말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 리더는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대상으로, 세상 및 사회는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왔다.<sup>68)</sup> 즉, 소통보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하겠다.

예수는 사람들과 깊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 변화를 가져왔다. 예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이후 더욱더 필요한 건강한 교회 리더십의 요소는 소통이다.

## 6. Hospitality (환대)

환대(Hospitality)는 낯선 사람들에게 우애를 베풀면서 그들을 동등한 친구로 여겨 친구와 같은 사랑이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sup>69)</sup> 즉, 낯선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64) 정약용, 36-37.

65) Kenneth Boa/ 조계광 역, 『완전한 리더』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8), 220.

66) *Ibid.*, 227.

67) *Ibid.*, 234.

68) 기윤실,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 발표회,” 『2023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 조사자료집』, 90.

69)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환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38(2014), 323.

으로 손님 대접을 포함해서 구제와 긍휼의 사역이다. 『목민심서』 애민 육조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환대하며 도와야 하는지 설명한다. 1조에 양로(養老)에는 노인을 위로할 때, 예를 갖춰서 공손하게 묻고, 은혜롭게 베풀며 선달 그믐전에 음식을 나눠줘야 한다고 한다. 2조 자유(慈幼)는 어린아이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환대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3조 진궁(賑窮) 편에 나온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를 사궁(四窮)이라고 칭한다. 이들은 곤궁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서 반드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딛고 일어설 수 있기에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며 함께 살 방법들을 제시한다. 다산은 목민관은 백성을 사랑해야 하며, 그 대상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이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목민심서』의 12편 중 한 편을 진황(賑荒) 편으로 조성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구휼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막연한 마음가짐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 때에 구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행하는 법, 굶주리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나누는 법 등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대하는 법을 알려준다. 진황 4조에서는 ‘어진 목민관(仁牧)’은 날이 맑은 청명한 날에 종자 대곡을 나눠주고, 궁핍한 자에게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도록 힘쓰는 자라고 말한다.<sup>70)</sup>

환대에 대한 명령은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외하라고 명하신 후, 18절부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입히라고 명한다. 예수는 산상수훈 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것을 역설하였다(마7:12). 또한, 예수는 심판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환대가 그 기준임을 알려주었다(마 25:35). 교회 리더로 갖춰야 할 요소로 환대의 중요성은 서신서 곳곳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롬 12:13, 딤후3:2; 5:10, 히13:2). 신약에서 사용된 환대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주인, 나그네, 또는 손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1)</sup> Parker Palmer는 “환대란 우리의 가정의 공간이든 혹은 우리들 개인의 인식과 관심의 공간이든 간에, 우리 개인의 공간으로 그 나그네를 초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할 때, 어떤 중요한 변형이 일어난다. 우리의 공간은 순식간에 확대되며 더 이상 견고하지도, 답답하지도, 또 엄격하지도 않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며, 자유로워진다. 그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다른 눈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롭게 된 것을 알게

70) “청명한 날에는 종자 대곡을 나눠주고, 떠돌아다니며 걸식하는 자는 천하의 궁핍한 백성으로 호소할 데가 없는 자이니 어진 목민관이라면 마음을 다해 도움을 주도록 힘을 기울여야 하며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정약용, 『목민심서』 진황 육조 제 4조 실시(設施).

71) 오오현, 322.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준다.”<sup>72)</sup>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Christine Pohl은 역사적 기독교에서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선택 사항이 아니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된 사항도 아니며, 신앙공동체로서 필수적인 실천이라고 주장한다.<sup>73)</sup>

타자에 대한 돌봄과 수용으로의 환대는 교회의 실천적 중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기독교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핵심적 실천이다.<sup>74)</sup>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환대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리더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며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

#### IV. 나가는 말

우리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탈 대중사회, 포스트 모던과 네트워크를 통한 변화와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주의가 더욱더 심화하였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대응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한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는 교회의 리더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교회 리더십의 요소를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고찰하였다. 시대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윤리와 신뢰도가 하락하였던 시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산 정약용이 건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술한 『목민심서』는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위한 리더십 요소를 제시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타난 목(牧)과 민(民)의 개념을 찾고, 건강한 교회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여섯 가지 요소를 선정하였다. 이 여섯 가지 요소는 영어 CHURCH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청렴을 가진 인성(Character),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겸손(Humility), 가르치는 자로 양육(Upraising), 해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Responsibility), 경청을 통한 소통(Communication), 돌봄과 수용을 위한 환대(Hospitality)이다.

Henri Nouwen은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두고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며,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을 행하고자 한다면 성육신하신 예수그리스도와 영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하고, 바로 거기에서 그들의 말과 충고와 지침들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sup>75)</sup> 본 연구로 제시한 여섯 가지 리더십 요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72) Parker Palmer, *The Company of Strangers : Christians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 (New York : Crossroad, 1981), 65.

73) Christine Pohl/ 정옥배 역, 『손대접』 (서울: 복 있는 사람, 2002), 39.

74)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50(2019), 29.

75) Henri Nouwen/ 두란노출판부 역, 『예수님의 이름으로』(서울: 두란노 1998), 13-34.

건강한 교회 리더십을 갖추어 본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 계재광. “한국교회 변화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리더십 틀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4(2019), 431-456.
- 구명숙, 김수동. “리더십으로서의 섬김의 현대적 이해-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한국 사상과 문화」, 38(2007), 295-330.
- 기윤실.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결과 발표회.” 『2023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 조사자료집』, 2023.
- 김광건. “미래 기독교 리더십의 공간성의 문제.” 「복음과 실천신학」 66(2023), 11-36.
- 김봉화. “목민심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2022), 409-421.
-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조선시대사학보」 52(2010), 157-196.
-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현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50(2019), 9-39.
- 김성진, 유연유. “담임목사 청빙유형에 따른 절차 공정성 연구 - 헤드헌팅 유형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69(2020), 821-848.
- 김순환. “21세기의 목회와 윤리.” 「복음과 실천신학」 19(2009), 9-37.
- 명성준. “목민심서에 나타난 정약용의 민의 수렴과 그 방안들.” 「국가정책연구」 21(2007), 49-70.
- 목회데이터연구소. “빅데이터로 본 한국교회 4대 이슈.” 178(2023).
- 박석무.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교육관”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2022), 3-8.
- 본회퍼/ 김순현 역.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 서울: 복 있는사람, 2016.
- 송영오. “茶山 丁若鏞의 牧民官倫理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양상진. 『CEO 리더십유형과 조직성과』. 경기도: 한국학술정보, 2007.
- 오오현.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공간으로서 현대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38(2014), 319-345.
- 윤승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방향.” 「신학과 실천」 58(2018), 601-625.



- 이세영. “적대와 대립의 온라인 세상을 향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선교와 신학」 58(2022), 93-123.
- 이수인.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과제와 신학교육을 위한 제언.” 「신학과 실천」 61(2018), 535-561.
- 이용락. “담임목사 리더십 계승의 성경적 방법 연구.” 「복음과 선교」 56, no.4 (2021), 159-195.
- 임성국. “코로나19 중 교회 건강성 회복 가능성 상승,” 「한국기독교공보」. 2023.03.02.
- 임채남. “건강한 교회 성장에 관한 실천적인 고찰: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31(2014). 105-132.
- 임형택. “특집 : 다산(茶山) 학문,사상의 재조명 ;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이해 -다산 정치학과 관련하여-.” 「한국실학연구」 13(2007), 7-38.
- 장동희. “목민심서를 통해 본 지방 행정책임자의 윤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5, no. 4(2003), 79-808.
- 장승희. “다산 정약용의 공직윤리 연구.” 「동양철학연구」 30(2002), 77-103.
- 정약용/ 안문길 역. 『다시 읽는 목민심서』. 서울: 비채의 서재, 2018.
- 정희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정치철학을 통해 본 공직윤리 연구-『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7(2010), 121-154.
- 조성호. “‘나노사회’ 파편화 극복을 위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 「신학과 실천」 84(2023), 85-114.
- 최진덕. “다산 실학의 구조와 그의 상복제도론.” 『다산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최한규. “다산 정약용 목민사상의 실학적 담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홍동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독해법과 공직자의 청렴.” 「다산과 현대」 10(2017) 279-306.
- 황인태. “교회 갱신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 「신학과 실천」 63(2019), 677-709.
- Boa, Kenneth/ 조계광 역. 『완전한 리더』.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8.
- Christine Pohl/ 정옥배 역. 『손대접』. 서울: 복있는사람, 2002.
- Nouwen, Henri/ 두란노출판부 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울: 두란노, 1998.
- Willimon, William/ 최종수 역. 『21세기형 목회자』. 서울: 한국기독교 연구소, 2017.
- Clinton, J. Robert. *The Making of a Leader*. Colorado Springs: NavPress, 1988.

- Dever, Mark. *What Is a Healthy Church?* Wheaton, IL: Crossway, 2007.
- Dever, Mark.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 United States: Crossway, 2013.
- Drucker, Peter. *Managing for the Future.* United Kingdom: Taylor & Francis, 2013.
- Kotter, John P. *Leading Chan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1996.
- Northouse, Peter G. *Leadership: Theory and Practice. 8th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19.
- Palmer, Parker. *The Company of Strangers : Christians and the Renewal of America's Public Life.* New York : Crossroad, 1981.
- Warren, Rick. "Comprehensive Health Plan: To Lead a Healthy Church Takes More Than Technique," interview by Ed Rowell and Kevin Miller, *Leadership* XVIII, no. 3 (summer 1997).
- The power of character (Yale Leadership Expectation: Demonstrate integrity & character) 접속 2023.08.13.  
<https://your.yale.edu/power-character-yale-leadership-expectation-demonstrate-integrity-character#:~:text=Whereas%20character%20refers%20to%20E2%80%9Cthe,behavior%2C%20regardless%20of%20external%20pressures.>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권 10집 원목(原牧)편. 한국고전종합DB. 접속 2023.7.30.,  
[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grpId=&itemId=GO&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MP\\_0597A\\_0100\\_010\\_0070&viewSync2=](https://db.itkc.or.kr/dir/item?itemId=GO#dir/node?grpId=&itemId=GO&gubun=book&depth=5&cate1=H&cate2=&dataGubun=%EC%B5%9C%EC%A2%85%EC%A0%95%EB%B3%B4&dataId=ITKC_MP_0597A_0100_010_0070&viewSync2=)

## 논 찬 1

# “『목민심서』에 나타난 건강한교회를 위한 리더십 요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조 성 호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 실천신학 / 영성과리더십)

이 논문은 나노 사회를 배경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리더십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연결하는 융합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범주 확대를 꾀하고 있다. 비록 종교적 배경이 다르고 동서양의 지리적 차이가 분명하더라도, 리더십을 매개로 유사한 내용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가치가 작지 않다. 더욱이 교회 내부와 외부의 세속 영역 사이에 존재하던 한국 사회의 엄격한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양자의 교류가 서로에게 발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연구자가 제안한 논지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 리더십의 6가지 특징을 ‘CHURCH’라는 용어로 묶어낸 점이다. 물론 비슷한 요소를 교회 지도자들의 핵심 가치로 제안한 경우는 많다. 그러나 위기라는 표현이 소수 전문가에게만 해당하는 특정 용어가 아닌지 한참 되었고, 이젠 누구나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이름에 담은 사실은 연구 주제의 심각성을 실제 측면에서 수용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가 이론 연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실에 접목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전문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신자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정리 방식은 연구목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런 긍정적 강점 가운데 연구가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유사한 미래 작업에 공

현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을 첨부하고 싶다. 먼저 학술 대회 연구논문이라고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글쓰기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나 조사 등의 부재에 의한 오타가 종종 보이고 한 문장을 마치기 까지 몇 줄이 이어지는 장문도 가끔 나타나는 등, 연구성과 증진에 해로운 요소가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연구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글의 주제와 논지 또는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은 그런 연구자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부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변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형식의 완성도는 연구자가 품은 사고의 명확성을 한층 가증하는 긍정적인 구실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연구자의 의도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각주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연구자의 독창적인 탐구가 무엇인지를 깔끔하게 전할 이유 역시 그와 동일한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사항은 과연 전형적인 성리학자로서 유학의 근본 원리 회복이 혼란스러운 조선 후기사회를 바로잡는 첩경이라 믿은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희생과 사랑에 부합하는 속성을 지녔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물론 연구자는 본문에서 정약용이 지닌 군주 사상을 일반 시민의 주도권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사상적 근거에 천주교를 일찍 받아들인 남인 계보의 흐름이 작용한다는 점을 서술했다. 천주교가 전한 성경 내용과 신앙 고백적 색채가 정약용을 포함한 남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개연성이 그들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파급효과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측이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 사회 양반 계층에 속한 남인의 천주교 신앙이 반드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인 신앙의 색채를 띠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서학(西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들은 성리학을 보완 또는 교류 차원에서 천주교를 이해했고, 일반 백성의 입장과 달리 조선 사회 개혁의 매개로 천주교 신앙을 포용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정황과 정약용이 지닌 학문적 이상을 근거로 판단할 때, 그는 철저히 유학의 효용성을 신뢰한 사람이었으며 조선이 추구한 신분제 범위 안에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은 유학자라는 잠정적 결론이 훨씬 더 타당성이 높다.

그러나 정약용과 그가 속한 집단의 기본 입장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한 복음서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종교적 차별을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와 사회 구성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혁명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초대교회가 지향한 혁명적 성격으로 인해 기독교는 유대교의 작은 분파라는 처음 출발점을 완전히 이탈하였으며, 유대교는 물론 그리스-로마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던 전방위의 사회 개혁적 가르침을 복음과 진리의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기독교와 손잡는 역사의 흐름 속에 배타적이고 가부

장적 성격을 지닌 교권주의가 강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창했던 최초 가르침이 퇴색했지만, 성리학의 이상을 재정립함으로써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려고 시도한 정약용의 의도와 비교할 때 양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 날처럼 다양성이나 다원주의가 가장 중요한 신학적 사고의 원칙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서 기술한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신약성경의 차이는 실로 막대한 까닭에 유사점을 대충 설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연구의 정합성을 획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설명을 추가로 진행할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세 번째 질문은 모든 실천신학 연구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질문으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어떤 절차를 통해 교회와 신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연구자가 제안한 『목민심서』 내용은 실제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채, 학자들의 존경과 연구 주제로만 남았다. 조선은 정약용이 비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없는 나락에 빠져들었으며, 외세의 제국주의적 침략 앞에 하릴없이 붕괴한 비극적 결말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약용의 사상을 기독교 리더십으로 승화하여 한국교회의 문제에 적용하기를 희망하는 연구자의 의도는 과연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효용성을 지닐 수 있는지 궁금하다. 원칙과 방향은 공감하더라도,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발표할 책임이 실천신학 연구자에게 있는 까닭에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자의 솔직하고 과감한 의견을 듣고 싶다.

본 연구는 나노 사회를 기반으로 전개한 실천신학 분야의 여러 선행연구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이유로 학회 구성원이 오랫동안 고민한 내용들의 흔적이 다수 확인되며, 암시적인 또는 간접적인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한 전공자가 생산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그를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한 방식은 높이 평가할 만한 자질이며, 그를 통해 실천신학 전반이 진보할 것이라는 생각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융합이라는 방법론적 대세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 역시 민감하고 섬세한 학문의 자세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을 설정하지 않은 전진이 무모한 도전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어떤 지침과 잣대로 구성할 것인지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기독교와 유교는 분명 상통하는 접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믿지만, 분명 서로 차별적인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공통점과 차이점, 경계와 한계, 원심력과 구심력 등의 상반된 요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역설과 모순을 창조적 상승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연구자의 추가 연구가 본인 자신뿐 아니라 모든 연구자의 노력에 심오한 학술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논 찬 2

# “『목민심서』에 나타난 건강한교회를 위한 리더십 요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논찬

이 강 학 박사

(횡블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실천신학 / 기독교영성학)

이영미는 이 논문에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건강한 리더십의 모델을 서양의 리더십 이론이 아니라 한국적 리더십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저자는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집필한 취지와 이 책의 구조를 설명한 후에, 목민에서 목(牧)은 교회의 리더와, 그리고 민(民)은 교회 공동체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목민관이 애민과 위민으로 백성을 섬기듯이, 교회의 리더는 선한 목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양을 섬겨야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저자는 『목민심서』에서 뽑아낸 건강한 교회를 위한 리더십의 요소 여섯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여섯 가지란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CHURCH로 줄여 쓸 수 있는데, 1) 청렴을 가진 인성(Character), 2)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겸손(Humility), 3) 가르치는 자로 양육(Uprbringing), 4) 해관(解官)으로서의 공적인 책임(Responsibility), 5) 경청을 통한 소통(Communication), 6) 돌봄과 수용을 위한 환대(Hospitality) 등이다.

이 논문이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가 주지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 리더십의 모델을 외국이 아니라 한국 전통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서양에서 전파된 복음이 서양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전통 문화와 불연속선상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이다. 리더십의 모델로 삼을만한 인물은 한국의 역사에도 술하게 많다는 점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라면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정약용은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룬 연구가 많이 없다는 점이 의아할 정도이다. 둘째, 목민심서에서 가려뽑은 리더십의 여섯 가지 요소들은, 신뢰도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항상 심각하게 되새겨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이다. 이를 단순하게 CHURCH로 표기한 것도 매우 창의적이다. 정약용은 그 사상이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천주실의』를 읽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파악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렇기에 더욱 정약용의 리더십 사상은 더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저자는 이 연구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이 학문적으로 좀 더 설득력 있는 작업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곧바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교회의 건강성을 파악하는 기준은 교회의 정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 저자는 목민에서 목은 교회의 리더이고 민은 교회 공동체라고 적용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교의 목과 기독교 교회의 리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19세기 조선시대 고위직 공무원과 21세기 기독교 교회 리더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 『목민심서』와 『여유당전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 좀 더 보완적인 설명과 함께 정확한 인용이 필요하다. 정약용의 전체 저술 가운데 『목민심서』가 차지하는 사상적 위치는 무엇인지, 『여유당전서』는 어떻게 출간된 것인지, “기민시”는 『여유당전서』“시집” 일곱 권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선 후기의 다른 목민서”(4페이지)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목민심서』여러 역본 중 왜 안문길이 번역한 『다시 읽는 목민심서』를 일차 자료로 삼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라도 언급되면 좋겠다. 『목민심서』의 정확한 위치는 『여유당전서』제5집 16권~29권이다. 그리고 “원목편”이 『여유당전서』1권 10집에 있다고 각주와 참고문헌에 표기했는데, 정확하지 않다. 찾아보면 『여유당전서』10권 “문집” 중에 들어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저자의 주장에 흥미를 느껴서 더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독자들은 각주를 통해 인용 자료를 찾게 되는데, 인용 정보가 부정확하면 연구자의 학자로서의 자세에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

4) 논문에서는 “해야 한다”는 설교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리더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폭넓은 독서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꾸준히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해 줘야 한다. 건강한 교회 리더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꾸준히 가르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과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꾸준히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11페이지),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현대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의 리더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며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14페이지)

5)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성리학의 윤리와 수양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의 여섯 가지 요소 중 인성에 포함된 칙궁(飭躬)과 청심(淸心)은 성리학의 수양론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떻게 ‘영성훈련’을 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적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저자는 “[정약용은] 청렴의 상대적 개념이 탐욕이라 생각하고 마음에서 탐욕을 제거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청렴한 사람이 된다고 주장했다.” 라고 인용하는데 그쳤지만, 독자들은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마음에서 탐욕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닐 것인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기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답은 성리학의 수양론에 기초해서 제시될 수 있다.

6) 기타: “상민”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블럭 인용의 경우 규정을 따라 표기한다. 각주 44) *Ibid*는 간접 인용을 하지 말고, 윌리몬의 저서에서 직접 인용해야 한다. 영문 이름은 한글 이름 표기 뒤 괄호 안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리더십 전통에서 건강한 교회의 리더십 요소를 찾은 저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저자를 통해 리더십 분야의 연구가 더욱 풍성해질 것을 기대한다.



##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1 조 (근 거)** 한국실천신학회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구윤리규정을 정하며 변화하는 연구윤리이해에 따라 기존 연구윤리규정을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등에 따라 개정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실천신학회 회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기대에 부합토록 본 학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강 령)** 본 학회의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진리와 정의의 추구라는 전제 아래 특히 기독교 학술단체로서 기독교적 이념과 가치의 관점에서 정직과 진실 및 공정에 기초해야 한다. 정직과 진실과 공정에 기초하지 않는 학문적 주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의 자유와 창의성 역시 정직과 진실과 공정이 담보될 때만 유의미하다. 진리와 정의의 학술적 가치는 특히 특정사회집단(젠더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 시각에 유의할 것을 요구한다.

**제 4 조 (실천원칙 -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윤리 원칙을 정한다.

1.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가 축적해온 학문적 성취를 성실히 전승하고 동료학자들과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학술교류와 상호존중을 통해 학문적 발전의 역사에 독창적으로 기여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모든 통용되고 허용되는 방식에 의해 타인의 기여 부분과 자신의 기여 부분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분 명시해야 한다.
2. 그 외 본 학회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가 규정하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연구대상자(참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나 연구자와의 윤리적 관계는 사회조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3. (투고자의 정확한 정보표기)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9 및 본 학회 투고규정 제2조-2와 제3조-2에 따라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직위를 표기하고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학회는 전임교수는 “교수”로 시간강사는 “외래교수”로 일괄표기하며 직위가 없는 연구자나 학생은 이름만 표기한다.
- 3-1. (공저자 표기방식) 본 학술지는 고유한 인문학적 특성상 공동저술 논문의 경우, 발행논문에서 ‘주저자’ ‘교신저자’ 등의 세분 없이 모든 저자를 단순 병기하여 공동합의기여를 강조한다.
4. (투고자 제한) 본 학회는 투고규정 제2조-2에 따라 게재논문의 높은 학술적 및 윤리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박사과정 학생 이상에게만 투고자격을 부여하며 기본교과과정과 종합시험 및 논문제안서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되, 단독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하여 논문에 대한 기여를 엄격히 관리한다.
5.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학회의 심사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6.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다.
7.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지는 내외부 학술연구지원비 운용에 적용된다.

**제 5 조 (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확립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을 포함한 임원 및 전 회장단 중 10인 이내로 신입임원회에서 위촉하고 정기적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의 사용
2. 변조 -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3. 표절 -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사용, 자신의 것인 듯 오인케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역으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특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학술지 등에 게재 발표하는 경우. 친인척 등 이해관련자를 공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정행위.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검증, 기간, 처리)**

1. (검증의 책임)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1과 제17조에 따라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진다.
2. (부정행위의 제보와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는 본 학회 학술활동의 심사와 평가를 책임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받는다. 의심사항이 접수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및 기관장과 협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2와 제21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인을 30%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해당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 1인이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 (검증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1, 제19조, 제20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착수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7조.  
-실명제보만 처리하되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존중돼야 하며 최종판정 전까지 부정행위가 공표돼선 안 된다.  
-피조사자는 조사 일정과 과정 및 조사자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피조사자는 소명과 이의제기 및 조사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부정행위 판정시 조치) 투고자나 발표자가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부정이 적발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 8 조 (연구지원비관련 부정행위 관리감독)** 본 학회는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해 발생한 연구지원비

를 운용함에 있어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연구비감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전현직 이사장과 회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본 위원회는 아래 위반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에 대한 회원권을 정지하며 학술활동을 포함 하는 모든 회원의 권리를 박탈한다.

1.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3.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다고 판정되는 경우
4.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 9 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과 교육)** 본 학회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여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투고논문과 규정심사에서 KCI유사도검사 합격기준을 10% 이내로 엄격 관리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케 함으로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저의 경우 규정심사 단계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를 확인함으로 부정편승을 막는다.
3.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전정보도 심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심사 후에 심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심사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원칙을 따른다.
5. 업무상 심사대상자와 심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아는 편집위원장은 전문심사를 맡거나 그에 간여할 수 없으며 오직 형식심사인 규정심사와 정량심사인 최종심사에만 책임을 진다.
6. 본 학회는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정기적인 교육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제 10 조 (개 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 2007. 10. 19일, 2014. 2. 8. 총회에서 보완, 2017. 2. 11. 총회에서 보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8년 2월 10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9월 15일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7대 한국실천신학회 조직표

### 고 문

고 문	박근원	박사	전 한신대학교 총장
	정장복	박사	전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김외식	박사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김종렬	박사	새고을기독교서원 원장
	문성모	박사	전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백상열	박사	은진아카데미 원장
책임고문	위형윤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김윤규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이요섭	박사	세종대학교 부총장 교목실장
	조기연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나형석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김충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김성민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김한옥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조재국	박사	연세대학교 교수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경진	박사	소망교회 담임 목사

### 제11대 이사회

이 사 장	황병준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상임이사	민장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이 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병석	박사	승실대학교 외래교수
	이수영	박사	서울한영대학교 교수
	김한호	박사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
	주희현	박사	홍익대학교 외래교수
	이상현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종민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백상훈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남성혁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승진	박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오주영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제28대 임원명단

회 장	서승룡	박사	새전주중앙교회 목사
선임부회장	구병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부회장	박은정	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총 무	이종민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부총무	이강학	박사	헷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진경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서 기	최종일	박사	제주대학교 교수
부서기	남성혁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양 신	박사	안성제일교회 목사
회 계	이수환	박사	성결대학교 외래교수
부회계	고유식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이민형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감 사	이수영	박사	서울한영대학교 교수
	김병석	박사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 전공학술분과 회장

목회사회/리더십분과	회장	주희현	박사
설교분과	회장	이승진	박사
상담치료분과	회장	이상현	박사
영성분과	회장	백상훈	박사
예배분과	회장	오주영	박사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회장	김한호	박사
교회성장/전도/선교분과	회장	남성혁	박사
교회교육분과	회장	이종민	박사

## 신학과실천 논문편집위원회

발 행 인	민 장 배
편집위원장	한 재 동
부편집위원장	김 명 실
편집위원	안선희, 최진봉, 김수천, 반신환, 유재경, 주연수, Sangyil Sam Park(미국)

## 특별연구분과위원회

국제학술분과위원장	이말테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간 사	김선일	박사	웨스트민스터대학원 교수
학술발표분과위원장	문병하	박사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간 사	정재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문편집분과 위원장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간 사	위성동	석사	디아콘 대표
논문자체평가 및 심사분과위원장	이현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간 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학진등재업무추진 공동위원장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형운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국제관계진흥위원회위원장	박상일	박사	미국 GTU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반신환(한남대학교 교수) 위 원 / 김나함(독일 마부르크대학교 교수) 허정갑(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학회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문성모	박사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간사 및 위원	간 사 / 위형운 위 원 / 김윤규(기장) 조기연(성결교) 김세광(예장통합) 이요섭(감리교) 조재국(감리교) 이명희(침례교) 박해정(감리교)		
실천신학대전 편찬위원회위원장	위형운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김윤규 조기연 김세광 나형석 김충렬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간사: 위성동		
한국세시풍속과교회력연구위원장	김순환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류원렬 위 원 / 하도균 이승진 그 외 지원자		
한국전통혼상제및기독교 성례전연구위원장	조기연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김형락 위 원 / 김형래 김명실 그 외 지원자		
한국10대성장동력교회위원회위원장	조성돈	박사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 사 / 김선일 위 원 / 위형운 김윤규 김세광 이요섭 김충렬 이명희 김한옥 정재영 최동규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

## 학회로고의 의미

- \*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음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교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성 속 다양성, 다양성 속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회의 간학제적 정신을 담고 있다.
- \* 3의 수는 삼위격의 상호관계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교회, 인격, 공공사회)의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 \* 가운데 ㅅ자 모양은 “실천”과 “신학”의 한글 첫 자음문자 ㅅ 및 헬라어 ʒ로 성육적 진리를 뜻하는 로고스를 나타낸다.
- \* ㅅ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상징한다.
- \* 외부의 둥근 녹색의 삼각 모양 3개는 한국 땅을 수놓아 온 산과 언덕을 나타내고, 가운데 ㅅ자의 푸른색은 한국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수를 나타낸다.
-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보편적 교회의 전통과 특수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실천신학의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고 대화함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
- \* 로고의 상징은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라는 표어에 의해 보강 설명된다.

## 한국실천신학회 설립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의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www.praxis.or.kr](http://www.praxis.or.kr)

발행일 2023년 9월 16일

충남 천안시 월봉로 48번지 나사렛대학교 지혜관 220호

TEL: 041-570-1836, 010-7936-1111(한재동)

이메일 : [ipraxis@daum.net](mailto:ipraxis@daum.net)

학회 입출금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학술지계재비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